

사립기대본

< 기사연 사회발전 포럼 자료집 >

이권 자료실	
날짜	문번호
C 6-3	1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일시: 1994년 7월 8일(금), 12시  
장소: 기장 선교교육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CISJD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서울 충정로 우체국 사서함 33  
 120-012  


---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35 Choongjeungno 2 Ga  
 (Choongjeungno P. O. Box 33)  
 Sodaemun Ku, Seoul 120-012  
 Korea  
 Tel: 312-3317~9 FAX: (02)313-0261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 한국 NGO의 과제

### 자료집 목차

- 자료 1 < 1992년 > 일본 아시아에 대한 연례보고서 (1992년)
- 자료 2 < People's Forum in 1991 > 보고서 (사회발전포럼, 1991년 12월 20일)
- 자료 3 < People's Forum in 1991 > 연례보고서
- 자료 4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 (1992년 7월 8일)
- 자료 5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6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7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8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9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10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11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12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 자료 13 < 1992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발전과 한국 NGO의 과제 (1992년 7월 8일)

일시: 1994년 7월 8일(금), 12시

장소: 기장 선교교육원

## 포름을 준비하며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가 여전히 불안정한 채 국제화, 블록화의 경향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과 사고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국제화'라는 슬로건은 어느새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또다른 지배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경제블러화가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APEC을 계기로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움직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차원, 민중운동차원의 발걸음도 바빠져야 합니다. 벌써 발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에 대한 유엔정상회담'에 대응하는 NGO차원에서 연대 움직임들이 멀리 산티아고, 방콕, 마닐라에서 진행되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태지역에서는 새롭게 대두하는 APEC에 대한 논의가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사연>은 아태지역의 질서변화가 지역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NGO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자료집 목차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와 아시아 민중 (기사연 연구부)

### 수록자료

- 자료 1. < PP 21 > 일본 미나마타 대회 선언문 ( 1989년 )
- 자료 2. < People's Forum in 1991 > 보고서 (『사회평론』 91년 12월호)
- 자료 3. < People's Forum in 1991 > 선언문
- 자료 4. < PP 21 > 92년 방콕대회 보고서 (『말』 93년 2월호)
- 자료 5. < PP 21 > 방콕 선언문 (『기사연 소식』 창간호)
- 자료 6. < PASD > 93년 4월 산티아고 회의 보고서
- 자료 7. < PP 21 APEC 작업반 회의 > 보고서  
    < WSSD 아태 NGO회의 > 보고서  
    < PP 21 확대 CT 회의 > 보고서 (『기사연 소식』 8호)
- 자료 8. < PP 21 > APEC 성명서 (『기사연 소식』 8호)
- 자료 9. < PASD > 94년 6월 마닐라 회의 보고서 (환경운동연합)
- 자료 10. < PASD > 마닐라 선언문
- 자료 11. 코펜하겐 WSSD 대회 소개문
- 자료 12. WSSD 코펜하겐 대회를 향한 활동 일정표



# 『“아.태지역 경제통합화”와 아시아 민중』

기사연 연구부

## I. 문제제기

## II. 세계경제질서변화의 경제적 기초와 특징

- (1) 초국적 기업과 자본국제화의 전개과정
- (2) 현단계 초국적자본의 전략과 지역주의

## III. 초국적기업과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통합

- (1) 미국초국적기업과 NAFTA
- (2) 일본초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 (3) APEC의 현황과 전망

## IV. 지역주의와 아시아 민중

- (1) EC통합의 모순과 교훈
- (2)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경향과 각국노동조합운동의 한계
- (3) 지역주의와 아시아민중

## V. 결론

## I. 서론

1.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가지 경향성의 통일된 특징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의 붕괴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확대를 가져왔고,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의 폭발적 확산에 따라 모든 개별국가경제가 세계경제의 일부로 통합되는 세계의 범지구촌화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국적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상품 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서비스 및 인적자원의 이동 등 경제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곧 초국적 기업(TNC: Transnational Corporation)<sup>2)</sup>을

1) 이러한 냉전체제의 붕괴와 세계경제의 자본주의체제로의 전일화 양상을 역사적인 시대 전환의 의미로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로 규정하기도 한다. (M. Itoh, "Japan in a New World Order", Socialist Register, Merlin Press, London, 1992.)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화의 경제적 기초(TNC의 자본투자양태)와 현재적 운동양태로서 지역통합형태(TNC의 지역거점망전략)에 주목하는 것이 현재의 질서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차상우(1994), "1980년대 일본 초국적기업의 대 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 초국적기업은 현재 다국적기업 등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1974년 남미국가들이 남남



중심으로한 무역-해외투자-기업간협업(전략적 제휴 등)으로 이어지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자본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에서는 유럽동맹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무역블럭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주에서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아.태지역에서도 지난 89년 창설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93년 11월 시애틀에서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 East-Asia Economic Cooperation)구상이 있다. 이처럼 경제적 블럭화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경제질서의 지역주의화경향 역시 현재의 세계경제질서의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로서 '세계화'와 '지역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세계화'는 각국민국가 단위의 경제가 세계경제에 보다 깊숙하게 편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지역주의'는 삼국(미국, EC, 일본)을 중심으로 인근 개발도상국이 통합되어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두 초국적기업(TNC)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축적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재의 세계경제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국적기업의 축적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위와같은 초국적기업의 축적전략의 변화에 따른 세계화와 지역주의화 경향은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토대변화에 상응하는 정치, 사회적 차원의 국가간 제도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국가 사회적 차원의 제도화가 EU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단지 자본위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화가 이루어진다거나, 해당 지역 민중의 삶과 생활의 조건인 복지과 노동차원의 사회적 제제도를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은 국제화논리와 경제통합논리에 따라 국제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서 임금억제와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농업해체와 환경파괴를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EU의 예를 살펴보면, EU각국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인플레이션율과 재정적자 및 부채규모 그리고 환율변동폭의 규정비율을 유지하고자 '복지국가 모델'의 국가적 역할을 포기하고 국가의 정책적 좌표를 TNC의 편으로 이동하였다. 즉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EU각국은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이를 위하여 증세와 세출의 삭감, 공공기업의 민영화, 교육, 의료, 사회보장의 축소, 인원감축을 통한 합리화, 임금억제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모든 조치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3.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목하여 초국적 자본의 운동양태와 지역경제통합(지역주의)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경제적 뿌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지역민중의 영향을 살피면서 지역통합화)에 대응하는 지역민중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협력형의 진정한 다국적기업과 선진국 거대기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에 UN에서 초국적기업(TNC)가 공식용어로 채택되었다.

3) 물론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서 기술적 요인, 정치, 군사적 요인이 작용하여 변화하는 측면을 도외시 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는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초국적자본의 운동양태 즉, TNC의 글로벌 네트워크전략의 현재적인 양태인 '지역거점네트워크 전략'(지역경제통합으로 부상)을 중심개념으로 사고하고자 한다.

4) 특히 근래 'APEC' 및 '동남아공동체 구상(지난 5월 20일 동남아10개국 합의문서)'과 6월 3일 발표한 일본통상성의 '94경제협력백서' 등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다. 특히 세계경제재편의 주도적인 경향으로서의 지역주의에 주목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지역거점네트워크전략이 지역민중에게 미치는 영향과 일국단위 민중운동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민중운동의 국제화와 그 연대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경제적 기초와 특징

### (1) 초국적 기업과 자본국제화의 전개과정

1. 70년대초까지 전후 세계경제는 IMF, GATT체제하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정치, 경제적 주도 아래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전후 자본주의의 누적된 모순이 70년대이후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세계경제가 전후 최대의 불황에 빠지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일본의 부상이라는 세계자본주의 제국간 불균등발전이 심화되었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 점차 불가피하게 되었다.

바로 미국중심의 일국체제에서 다국체제로의 이행을 알리는 80년대의 선진국간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전세계적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요구되는 시장개방압력, EC, NA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움직임 등은 UR의 다자주의적 협상의 새로운 물의 창출과 대비되면서 GATT의 해소와 95년 WTO시대의 개막으로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는 국민경제를 기본구성 단위로 하는 IMF, GATT체제와는 달리 지역경제통합이 기본구성단위가 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가리키고, 여기서 지역통합은 지역내 제도, 지역내 질서의 창출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서가 발생하는 제반의 근거는 무엇이고 발생과정은 어떠한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지역주의가 하나의 국제경제질서이며 제도라면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질서이며, 따라서 그 기저에는 그것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하부구조로서의 국제적 생산관계가 존재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제적 생산관계란 자본축적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세계시장에서의 자본간 경쟁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생산관계는 자본축적의 국제적 형태인 자본국제화의 제형태(세계시장에서 자본국제화의 제형태에는 상품수출이 지배적인 시기와 자본수출이 지배적인 시기가 있다)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러한 자본국제화의 제형태와 국제경제질서는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기초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자본국제화의 형태가 상품수출 대신 '자본수출'이 주요한 형태가 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의 구조를 초국적자본의 운동과 관련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의 경제통합움직임은 이지역의 정치적 낙후성과 관련하여 더 저열한 차원의 사회적 덤핑과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예고 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지역에서의 민중운동의 국제적 연대는 더욱 요구된다고 볼수 있다.

5) 전후 자본주의하에서 고도의 생산력발전 및 국제분업의 심화를 주도한 주체는 초국적 자본(TNC)이다. 초국적자본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보편화된 현대금융자본의 존재형태의 하나로 국경을 초월한 잉여가치의 확대, 직접생산과정을 포함한 가치증식과정의 대외적 팽창의 결과 나타난 국제트러스트 내지 국제콘체른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초국적 자본은 과거 독점자본주의시대의 자본수출이 주로 증권투자 형태로 전개된 것과는 달리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생산의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세계경제 내에서 생산, 무역, 자본이동, 기술 이전 등과 관련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왔다.



2. 전후 자본주의세계경제는 IMF, GATT체제의 성립으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것의 역사적 조건은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것과 동서냉전체제의 등장에 따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간 대결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국제화의 최초의 형태는 상품수출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70년대초까지 지속된 이형태는 IMF, GATT체제에 의한 환율의 안정과 관세장벽의 완화에 의한 세계시장에서의 상품수출의 자유로운 무역과 미국의 월등한 생산력에 의한 상품수출의 확대가 세계시장의 확대의 원동력으로 작용한것이 주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품수출형 자본국제화는 각국민경제간의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국제적인 분업관계를 확대-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는 한편 국민국가간의 무역불균형이 확대되었고 자본주의 경제간 불균등발전을 가속화시켰다. 50년대에 전세계 수출에서 약20%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은 60년대 중반을 고비로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더니 65년에서 69년에는 점유율이 16.1%까지 하락하였다.

70년대 들어 환율제도의 변경과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환율전쟁이 가세하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진각국은 상품수출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70년대를 고비로 자본수출<sup>7)</sup>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점은 제조업 자본수출의 대부분이 유럽, 미국, 영국과 같은 중심국에 투자<sup>8)</sup>되었다는 것이다. 전후 자본수출은 '비관세장벽의 증대', '변동환율제의 도입'과 같은 보호주의적 경향의 부활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58년 유럽공동시장의 결성 이후 미국자본의 대유럽진출, 70년대 초반의 선진국 대미투자의 급증, 85년 플라자합의와 EC 통합계획 발표에 뒤이은 해외직접투자<sup>9)</sup>가 그것인데, 70년대 이후 특징으로서 자본수출이 선진국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유리한 투자대상을 찾는 과잉자본의 투자고려 요인으로서 '값싼 원료', '값싼 노동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을 대신하여 전후에는 선진국시장에의 접근이 자본수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자본수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생산력발전에 따라 자본축적의 소재적 내용이 1차 원료로부터 크게 벗어난다고 한다면, 생산과 판매면에서 후진국의 의의는 후퇴 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발전의 탈자원적 성격에 따라 생산에서의 1차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그로인한 경제발전의 정체와 소비능력의 정체는 후진국이 판매시장으로서의 의의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기술혁신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등장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의존을 더욱 높이게 된다. 한편 보호무역의 강화는 상품수출 접근이 어렵게 하여 자본수출이 그 대안으로 추구되게 된다.

3. 선진국간 상호투자의 증대는 세계시장을 둘러싼 경쟁의 형태가 보다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상품수출 외에 선진국시장에 진출한 외국자본과 현지자본 간의 경쟁이 세계

6) 환율변동이라는 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달러화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후 3년 사이에 서독마르크화에 대해서는 36.9%, 일본엔화에 대해서는 32.8%나 절하되었다.

7) 60년대 자본수출은 미국과 영국 등에 한정되어 있던바 미국이 당시 전세계자본수출의 약반을, 그리고 영국이 12~13%로 이들나라가 세계 직접투자의 2/3을 차지하고 있었다.

8) 1960년 현재 전세계 자본수출(잔액기준) 중 선진국 비중은 67%인 반면, 후진국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지속되어 73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74%, 25%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산업별 구성을 보면, 1914년에 15%에 불과하였던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투자는 1960년에는 35%로 증가하였다. Dunning, Explai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1988. 일본무역진흥회, 『세계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1992.

시장에서 경쟁의 새로운 주요한 계기로 등장한 것이다.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대미직접투자는 엔고등 대미수출여건의 악화와 미국의 수입규제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미직접투자가 늘어났으며 본국생산-현지판매 형태에서 현지생산-현지판매 형태의 자본국제화가 강화되면서 자본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러한 자본수출의 영향은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쇠퇴와 유럽과 일본자본의 미국자본에 대등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고 불균등 발전을 확대시켜 국민경제간의 무역마찰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가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수출의 의의가 증대하면서 중심국자본간 경쟁은 더욱 전면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4. 한편 자본국제화의 형태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TNC와 후진국자본간에 혹은 TNC간의 생산 및 판매네트워크<sup>10)</sup>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형 자본국제화(Global Network Strategy)<sup>10)</sup>가 지향하는 광역화된 국제분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생산, 판매, R&D 거점간에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노동력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바로 지역경제통합(지역주의)은 이같은 네트워크형 자본국제화의 요구에 조응하는 국제경제질서인 것이다. 다음절에서는 이와같은 TNC의 네트워크형 자본국제화의 전략과 지역주의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보자.

## (2) 현단계 초국적자본의 축적전략과 지역주의

1. 현국면에서 초국적자본의 운동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은 초국적자본의 '지역거점망 구축전략'이다. 그것은 미국, 일본, EC라는 세 그룹의 초국적자본이 '특정 지역'에, 그것도 각 자본의 "본국과 인접한 지역"에 직접투자를 강화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초국적자본의 국제분업구조가 '각 지역별로 자기완결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아시아지역에서 역내 분업체계의 구축을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시켜 놓고 있는 일본의 도요다는 아세안각국 사이에서 자동차생산의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부품공급을 통해 자기완결적인 자동차생산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법인이 지역본부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전기부품 등을, 인도네시아에서는 엔진을, 필리핀에서는 트랜스미션을, 그리고 태국에서는 디젤엔진 등을 생산하여 이들을 상호공급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9) 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수익성하락의 위기를 경험한다. 이에 대한 자본의 두가지 대응은 먼저 작업방식으로서의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생산과정의 합리화, 유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자본의 국제화와 관련하여서는 전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효율적, 합리적 재배치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네트워크형 생산체계의 구축은 에너지절약적, 노동절약적 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혁명의 신기술이 그 기초를 제공하였다. 물론 이를 통해 자본은 수많은 노동자를 축출하고 노조를 약화시켰다.

10) 1985년 이후 일본 초국적기업의 해외직투전략인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Global Network Strategy)'은 세계를 몇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총괄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자회사들이 통합되는 초국적기업의 전 세계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또한 그 하위에 지역중추네트워크(Regional Core Network)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한 지역내에서 모회사-지역총괄회사-자회사간, 자회사들의 연관관계를 제고시킴으로써 지역단위의 생산유통자급조달 체계를 갖추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화=블러화'의 경향이 대두되게 된다. 차상우, 『1980년대 일본 초국적기업의 대 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2. 초국적자본의 '지역거점망 구축전략'은 세계시장에서의 격화되는 경쟁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국제분업체계의 구축필요성이 증대된 원인(역내TNC가 역외TNC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그 동기로 하고 있다)에 따르는 바, 해외생산망 구축에서 저임노동력의 존재 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으로부터 오는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은 각 지역의 초국적자본으로 하여금 인접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따른 지역의 초국적자본이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3. 초국적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국제분업의 심화는 결국 분업체제에 포괄된 각국간의 협조를 필연화시킨다. 초국적기업은 자본축적의 국가적 한계를 돌파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간 자본축적의 공간적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일뿐 아니라 반독점규제, 사회정책의 실시 등을 통해 축적의 사회적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한 것이다. 끊임없이 축적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자본에 있어 이러한 장벽은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초국적기업은 국가 간의 장벽을 부수고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탈규제)하는 경제통합 혹은 세계경제의 통합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11) 곧 각국은 초국적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국가간의 경제적 장벽을 완화시켜야 할 필연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초국적자본의 지역거점망 생산네트워크에 조응하는 각국 차원에서의 제도화된 경제통합이 형성되는 것이다. 12)

4. 결국 지역경제권 형성의 경제적 기초는 초국적자본에 의한 지역거점망구축 중심의 축적 전략과 이에 따른 직접투자의 특정지역으로의 상대적 집중,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역내무역의 비중증대 양상 등이다. 특히 전후 자본주의를 지배해온 미국에 의한 단일세계모니 체제의 해체와 다극체제의 형성 역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현 국면에서 전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으로서의 지역주의화란 일극체제의 해체와 다극체제의 형성을 그 국제관계적 조건으로 하면서, 초국적자본에 의한 생산국제화(글로벌전략)의 현재의 양상에 조응하여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역내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역내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초국적자본의 축적전략이 그 기본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장에서는 지역통합의 구체적 움직임을 살펴보자.

11) 여기서 우리는 초국적자본과 민족국가적 심급과의 마찰, 주변자본과 중심자본과의 마찰, 정치통합과 경제통합과의 마찰은 지역주의경향과의 배리되는 경향으로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2) 실제로 유럽의 자본가들은 EC가맹국 간의 생산요소 즉 상품, 자본, 노동력, 기술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역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본은 EC통합과 함께 역내시장에서의 경쟁격화를 이유로 임금억제, 고용의 탄력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완화 등 생산과정에서의 착취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 III. 초국적기업과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통합

#### (1) 미국초국적기업과 NAFTA

1. 1991년 6월 이후 추진되어왔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은 1992년 12월 17일 최종조인되었으며, 미국내 환경론자와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3년 11월 미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NAFTA는 현실화되었다. 이로써 인구 3억 6,800만 명, GDP 규모 6조 4,19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 탄생하였다.

(표 1) 권역별 경제규모 비교(1991년 기준)

	GDP (10억 달러)	민간소비지출 (10억 달러)	인구 (백만 명)
-NAFTA	6,419	4,442	368
미국	5,549	3,889	253
캐나다	587	363	27
멕시코	283	170	88
-E C	6,252	4,072	345
-일본	3,363	1,908	124

자료 : IMF, IFS, Aug. 1992.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July 1992.

BANCO de MEXICO, The Mexican Economy, 1991.

2. NAFTA와 EC는 모두 역내 국가간 분업연관의 확대를 통해 일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C가 회원국들간의 경제발전 정도가 비슷해 역내 초국적 기업들이 경제통합에 따라 기업협력 및 수평분업을 진척시키는 것과는 달리 NAFTA는 회원국간 경제 수준의 격차가 커 미국계 초국적자본에 의한 멕시코와 캐나다 산업의 흡수 및 수직적 재배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NAFTA의 추진배경과 그영향은 3국 모두 경쟁력저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EC 및 일본 TNC에 대응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3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인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점, 그리고 3국에 분산된 생산 및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이해관계 등이었다.

먼저 미국으로서는 먼저 멕시코의 풍부한 저임금<sup>13)</sup>과 자원을 이용한 미국경제의 경쟁력회복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한 북미시장 전체 수요증가의 15%를 차지하는 멕시코의 잠재적

13) 멕시코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의 1/7, 아시아의 1/2수준에 불과하며 사회보장비 지급부담도 적다. 또한 최근 멕시코는 노동자, 정부, 업계가 모여 경제안정협정(PECE)을 체결함으로써 임금인상과 파업을 억제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본에 비해 노동력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풍부한 산업예비군은 미자본의 이동에 따른 미노동자의 실업증대와 고용불안을 낳아 미국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시장의 선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큰 중남미시장<sup>14)</sup>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바로 멕시코는 미주구상의 교두보로서 생산 및 판매거점으로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노총은 미국자본이 값싼 노동력의 멕시코로 진출로 말미암은 미국실업증대의 이유로 NAFTA법을 결사반대하였다.

4. 멕시코는 그간 미국의 식민지 경험과 미국계 초국적기업에 의한 부의 유출로 미국에 대한 국민적 반대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1980년대 10년간의 경기침체는 이러한 반미감정을 잠재웠다. 그동안 멕시코는 1979년 대규모 유전의 발견으로 도시중심 발전전략을 택하였으나 80년대 세계석유가격하락으로 인한 외채위기가 심각해져 외채상환부담과 자본유출로 생산활동이 마비되고 경제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농촌경제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더불어서 1988년 살리나스의 집권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책으로 급선회는 이전의 정부의 경제개입에 의한 국내산업보호정책을 폐기, 당장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자본과 국내의 높은 실업율을 낮춰줄 일자리를 멕시코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쟁을 통해 산업효율을 높이고 외국자본이 유입될 조건을 만들어 자본부족과 저기술상태를 탈피해보자는 것이었다<sup>15)</sup>.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지향정책과 긴축재정정책으로 농업보조금의 삭감은 농촌경제의 황폐화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멕시코 농민은 NAFTA가입을 계기로 무장투쟁을 선택케 한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는 농업이 주요한 기간 산업이며 인종적으로는 북부의 아메리카-메스티조와 대별되는 인디오-메스티조인데 그간의 산업기반이었던 농업이 석유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지역의 폐쇄와 농업의 사양화로 이들에게급과 지역에 대한 초토화를 결과한 것이다. 멕시코는 8천 5백만 명 중에 절반이 빈민에 속하고 약25%가 극빈자들이다. 이들을 민족적-인종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무장투쟁 세력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전선은 토지개혁과 정부개혁을 요구하며, NAFTA발효일을 기점으로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5. 미의 초국적기업은 1960년대 이후 일본 및 유럽과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임금이 낮고 노동자의 저항이 약한 제3국에서의 생산비용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미국에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기업의 해외생산에 1차적인 대상지역이 되었다.

미국의 대멕시코투자는 선진국경제가 장기침체국면을 맞이한 1982-83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미 자동차 빅3등 초국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분업구조가 급진전되었다.

미 초국적기업의 멕시코진출은 멕시코 내수시장 판매를 우선 순위로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멕시코의 저임금을 이용하여 부품을 저가에 생산,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수의 TNC가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위치한 점, 그리고 양국간 기업내 무역확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80년대 들어 양국간의 기업내 무역의 급증은 미국계 TNC에 의한 미-멕시코간 분업연관의 심화를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14) 미국은 NAFTA와 때를 같이하여 범미주구상(EAI)을 제안, 이 제안은 알레스카부터 칠레까지를 모토로 미주지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전단계인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15) 박상현, '멕시코의 NAFTA 참가요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외대, 1993.

<표 2> 미-멕시코 간 기업내무역의 추이 (백만 달러,%)

	1982	1989
멕시코의 대미수출(A)	11,315	15,776
A중 미국자회사에 의한 수출(B)	774(7%)	4,268(27%)
B중 미국모회사에 대한 기업내수출	727(94%)	4,198(98%)
멕시코의 대미수입(C)	8,959	15,755
C중 미국자회사에 의한 수입(D)	2,328(26%)	6,640(42%)
D중 미국모회사에 대한 기업내수입	2,095(90%)	5,996(90%)

자료: U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S ENGINES OF GROWTH.

<표3> NAFTA의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관세장벽	*대다수 품목관세는 5-10년내, 수입민감품목관세는 15년내철폐 *섬유 및 의류제품의 관세는 최장 10년 내 철폐 *자동차의 관세는 5-10년 내 철폐
비관세장벽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등의 비관세장벽 철폐 *멕시코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 즉시철폐 *자동차에 대한 멕시코의 수입제한제도 즉시 철폐
원산지규정	*자동차산업 현지조달비율 62.5%로 강화 (미, 캐FTA: 50%)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
투자 및 서비스교역	*통신, 은행 및 증권, 보험, 육상운송업 등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승인시 부과되고 있는 멕시코의 수출이행요건 폐지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 (2) 일본초국적기업과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전망

1. 아시아지역에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자유무역지대(AFTA), 중국, 대만, 홍콩을 잇는 중화경제권, 태국이 중심이 된 바트경제권, 나아가서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환동해경제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sup>16)</sup>이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중에 있다. 하지

16) 지난 5월말 마닐라에서 있는 동남아 10개국(아세안6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비공식회의에서 발표한 합의문서는 정치적 협력관계를 통해 10개국이 유럽연합을 모델로한 동남아공동체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동남아공동체의 기본이념으로서는 1) 국가적, 지역적 강인성, 2) 다양성속에서의 조화, 3) 공통의 국가이익, 4) 개방된 지역주의의 네



만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국민국가간의 경제협력의 이해에 의한 활동이라기 보다는 세계시장을 둘러싼 초국적기업간 경쟁의 최근 행태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 지역의 경제적 리더라 할 수 있는 일본 초국적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추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94년 6월 3일, 일본통산성은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 베트남, 인도와 고도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는 94년 경제협력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또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산업기반 정비나 인재육성 등을 지원해 아시아 전체의 국제분업체제를 촉진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라고 밝힘으로써 이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과 전략의 일면을 현실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등에서 일본이 중심이 된 아시아경제통합의 요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의 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3. 먼저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과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초국적기업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초국적자본의 해외진출은 70년대초를 기점으로 확대되었는 바, 그원인으로서 71년의 닉슨쇼크에 의한 엔화가치 급등과 70년대 초반 ME혁명의 개시, 그리고 60년대 일본의 고층적에 의한 노동력의 부족과 임금상승으로 말미암아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저급 가전제품과 섬유산업의 아시아 이전으로 출발하였다. 이 시기 아시아NIEs는 일본 초국적기업의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가 생산공정으로 결합하는 전형적인 수직적 기업내분업에 포섭되었다.

70년대말 미국과의 무역마찰의 심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전기기기와 수송용기기를 중심으로 미국으로 수출대체적인 직접투자를 강화하는 계기를 맞게되고 85년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고를 계기로 일본의 초국적기업은 격화되는 초국적자본간의 경쟁과 유럽과 북미의 보호주의의 대응으로서 북미와 유럽지역 등의 '선진국시장으로의 직접투자가 대안으로서 자리잡는다. 이에 따라 80년대들어 일본 초국적자본의 대선진국 및 대개도국 투자의 동기 및 형태는 선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곧, 북미 및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미무역마찰의 완화와 EC시장통합에 대응하여 현지생산에 의한 수출대체와 현지판매를 위한 생산거점의 확충에 그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현지생산-현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현지 판매 이외에 일본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조업투자의 경우에 노동코스트가 싼 지역(아시아NIEs→ASEAN→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 수출거점을 옮기는 한편 역내분업이나 기업내 분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EC는 현지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판매거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반면 아세안과 아시아NIEs는 생산비 격차를 이용한 생산수출거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고 말할 수 있겠다.

80년대 후반 일본기업의 대아시아투자는 북미와 유럽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는 양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뒤지고 있으나 80년 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대상지역에 있어서도 아시아NIEs에서 아세안으로 직접투자가 이동하였고, 아시아NIEs에 있어서는 투자가 제조업으로부터 금융, 서비스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sup>17)</sup>. 또한 90년 이후에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안보면에서의 관계강화와 경제-기술면에서 아세안 자유무역권 및 공동효과특혜관세(CEPT) 실현을 오는 2000년까지 앞당기고 인적교류를 촉진하며, 아세안 위성발사 등 다양한 사회-문화면에서의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17) 아시아NIEs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아세안으로 급격하게 이전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을 88년부터 추월하여 90년에는 이지역 총직접투자수입액 304억 달러 중 일본의 68억 달러에 비해 149억 달러에 달해 일본 직접투자에 2.2배에 이르렀

증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서남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대상지역의 교체와 함께 일본 초국적자본의 전략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증대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에서의 '역내분업형 생산네트워크' 구축경향은 과거 일본의 모기업과 아시아 자회사 간의 단선적인 수직분업체계를 대체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과거와 같이 일본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아시아에서 조립하는 공정간 분업(부품조달비용의 상승이라는 위협에 직면)으로부터 아세안 각국에서 부품을 생산,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역내분업형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측면이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초국적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형태로 경제통합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전기전자관련 초국적기업은 일본과는 달리 본국에 대한 역수출의 비율이 매우 높는데, 이 사실은 미국 초국적기업에 있어서 아시아전략은 그 지역의 저임금을 이용한 재외조달생산과 국제하청이라는 점에서 일본 TNC의 전략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더구나 80년대 후반 이후 이지역의 역내수출의존도의 상승과 대미수출의존도의 지속적인 하락은 일본 초국적기업의 자본축적이 역내생산 뿐 아니라 역내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에 있어 역내통합의 물적토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APEC의 현황과 전망

1. APEC의 결성은 1989년 2월 한국-호주 정상회담에서 호주의 호크총리가 아.태지역 정부간 공식협의체의 창설을 제안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11월 호주의 캔버라에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아세안6개국, 뉴질랜드 등 12개국의 각료들이 참가한 제1차 APEC 각료회의에서 개방성의 유지, 다양성의 존중, 합의에 의한 협력추진 등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APEC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1991년 서울에서 열린 제3차각료회의에서는 APEC의 목표, 활동범위, 운영방식, 회원국자격,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직의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협의함으로써 APEC의 구체적인 형식을 마련하였으며, 중국, 대만, 홍콩 등의 신규가입으로 15개국의 경제협의체조직이 됨으로써 경제규모면에서나 인구면에서 세계최대의 지역경제협의체로의 가능성을 부상시키게 되었다.

이후 1992년 9월 방콕에서 제4차 회의에서는 3차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키로 합의하였고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통계전산망의 설치, 통관절차 간소화, 시장접근에 대한 행정조치 개선, 투자규정집 발간 등 4개의 단기 과제 추진을 합의하여 APEC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켰다. 또한 장기비전 수립을 위해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의 발족을 합의하였다.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의 제5차 APEC 각료회의에서는 저명인사그룹(EPG)보고서 처리 방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선언문 채택문제, 무역투자기본선언 및 무역투자위원회 구성, 회원국 추가가입 승인문제, APEC 기구개편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아.태지역 비전 가시화방안,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문제 등 두가지 사안도 논의하였다. 여기서 저명인사그룹보고서의 제안은 APEC이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실현해야하며 96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음이 드러났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공업제품에서 아시아NIEs가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의 해외현지법인과 경쟁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료회의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각료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경제공동체 의식에는 주목하나 그 이행에는 추가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함으로써 입장의 통일에는 이루지 못함을 분명히 드러냈다. 무역투자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경제협력강화방안이나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한 UR에 관한 특별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원칙에서 일정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APEC 회원국의 국민총생산(GNP)을 합해보면 10조 5,522억달러(90년 기준)으로 세계전체(21조 8,631억달러)의 48.3%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공동체(EC) 27.4%나 NAFTA 28.9%에 비해 훨씬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도 세계전체의 43.9%, 수입은 42.4%로 세계전체무역의 43%로서 세계 교역량의 4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아시아NICs와 아세안국가들의 81년에서 90년까지의 성장율이 7%를 웃도는 높은 고도성장은 이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 APEC은 지난 시애틀 회의를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보를 내딛었으며 각 회원국은 APEC에 보다 많은 비중을 실게 되었다. 따라서 APEC이 "강력한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데는 수많은 장애가 놓여있다. 경제, 정치, 문화, 인종, 종교상의 차별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큰 통합력을 갖기 어려웠던 APEC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요구 또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향후 APEC의 전개에는 세계경제의 흐름, 각국간의 역학관계 등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있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는 교두보로 삼으려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영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는 일본을 APEC의 강화를 통해 견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또한 APEC을 EC의 배타적인 경제블록을 견제하고 세계경제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세계경제의 무역-투자질서의 형성에 있어 APEC을 자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후방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APEC과 북미자유무역지대를 연결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APEC의 강화를 통해 아태지역을 북미자유무역지대와 연결된 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일본은 APEC역내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에는 이해를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주도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아시아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온 일본으로서는 자신의 안마당에 대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APEC이 갑자기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거나 혹은 블록화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자평속에서 이 지역의 갑작스런 경제질서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 블록화로 말미암은 세계자본의 유치 및 상품시장의 확대에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APEC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제안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결성 제안은 다른 아시아국가들에게 별다른 동의를 얻지를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게 동아시아경제그룹에 참여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이 미국이 주도하는 APEC의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이면에는 아세안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일본자본의 요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APEC의 무역, 투자상의 협력이 강화될 것임을 전제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전망은 가능하다고 본다.

곧, APEC이 EU나 NAFTA와 같은 차별적인 블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각국의 동상이몽속에서 원만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지체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EU, NAFTA등의 출범으로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바, 아태공동체의 필요성이 절실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

국가 함께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아태지역 시장의 경제적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바에 따라 아태지역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할 것이다.

#### IV. 지역주의와 아시아 민중

##### (1) EC통합의 모순과 교훈

현재 유럽은 심각한 실업률에 봉착해 있다. EC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11.2%이고 유럽의 경제우등생이던 독일도 통일 이후 9%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25세 미만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세명중 한명, 프랑스와 영국은 네명중 한명으로 극심한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99년 1월 EC단일통화로 경제통합을 완결하기 위한 단계적 보완조치로 6월 현재 유럽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 좌파의 약진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95년 스웨덴 등 4국이 추가가입하고 97년 1월에는 고정환율제가 최종확립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매우 험난한 정도를 넘어서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분열양상이 내년도에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유럽경기가 호전될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은채 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반대세력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유럽통합은 이제 경제통합 이전에 자국내의 정치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EC통합에는 80년대 자본주의 재편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계기가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다. 유럽의 거대자본들은 EC가맹국 간의 상이한 제도 및 기준에 따른 시장의 분할, 국가의 과잉개입, 그리고 참을 수 없이 높은 임금수준과 노동조건, 사회보장비용 부담 등에서 자신들의 자본축적을 방해하는 모든 비효율과 비경제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팽창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였다. 더우기 세계시장에서 격화되는 경쟁은 유럽자본가들로 하여금 축적조건을 재정비를 강요하는 외적 강제로 작용하였다.

유럽자본가들은 그 대응으로서 EC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선택하였다. 통합에 따른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의 상실과 통합된 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분명 자본에게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경쟁과 시장의 물결이 규제의 불편함과 노동자의 오만함을 쓸어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면에서 EC통합은 신보수주의의 유럽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럽연합의 산업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통합을 통해 하나의 산업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안정된 생산, 판매, 투자조건을 마련하여 유럽계 TNC의 국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며, 사양산업, 전통적 산업에 대한 업종전환과 생산량감축을 유도하고, 그다음으로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업종전환과 전유럽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탈규제의 전유럽화와 자본의 새로운 집적과 집중이라는 상위 목표하에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속에서 EU의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EU각국에서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노자간 임금협상의 개입을 통한 임금억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콜정부는 사회보장기금 출연율의 10%인하와 실업수당 2%축소,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및 재산세의 증세조치를 발표한바 있으며, 스페인정부는 공무원 임금동결, 의료지출의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긴축정책을 내놓았다. 프랑스에서는 대대적인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민영화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함께 물가-임금연동제인 scala mobile가 92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고, 이탈리아 노조역시 이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 대부분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며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결국은 일반대중의 희생위에 대자본들의 축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결과 대중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되었다. 먼저 그분 노는 프랑스에서 폭발하였다. 프랑스 국영항공사인 Air France 노동자들은 4,000명의 노동자 해고 계획이 전해지자 격렬한 스트라이크에 돌입, 우익정부 발라뒤르 수상으로하여금 해고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최저임금삭감 계획에 학생과 시민들의 대대적인 시위를 발발시켜 정부의 양보를 받아냈고 말았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93년 1400만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초긴축 정책에 항의,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에 정부는 칼라브리아화학공업지역 50만명의 노동자해고 계획을 취소하였다. 벨기에에서도 임금동결과 사회보장삭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정재건계획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단행, 전국의 민간, 공공부문을 모두 마비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EC통합은 지역대중의 희생과 이의 저항을 낳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보세력의 대응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합유럽에 대한 진보세력의 대응모습은 현재 통합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대한 원칙적 반대아래 시장통합에 대한 투쟁과 민족적 주권의 방어를 위해 투쟁하는 소수파와 통합을 필연적 과정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유럽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다수파로 나눌수 있다. 여기서 다수파는 다시 통합과정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자간의 이해균형을 추구하는 노사협조주의 또는 사회동반자주의 분파와 모순과 갈등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통합과정에서 신보수주의 헤게모니를 진보세력 헤게모니로 개편하고 자하는 분파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통합의 반대중적 성격이 드러나고 통합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공동행동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ETUC(유럽노련)은 통합의 진로에 대한 노동운동의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88년 3월 스투홀름)하였다. 첫째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 둘째 고용창출, 교육훈련과 보다 나은 생활,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 셋째 평등과 사회적 보호, 넷째 노동자의 권리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다섯째 세계속에서의 유럽발전의 전망확보 등이다. 그리하여 89년 EC정상회담에서 EC사회계약의 기본내용을 담은 '사회헌장'을 보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애초 서명국에 대한 아무런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 한계를 지닌 헌장이었다.

이에 유럽 노동자들은 사회헌장의 구체화를 위해 40여개의 공동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싸웠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몇개의 제안만이 입법화된 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현재 지역경제통합이 진행되거나 기도되고 있는 지역국가 대중에게는 압당한 소식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제통합이 지역의 비정부조직들에게 경제통합의 환상을 깨고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경험과 자료로 남겨지고 있는 것이다.

## (2) 초국적 기업의 세계화경향과 각국 노동조합운동의 한계

1. EU, NAFTA의 결성과 APEC움직임과 같은 지역화 경향이나 초국적자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세계화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아직 국민국가 단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은 자본의 세계화와 지역화 추세 가운데 낮아진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지만 일국단위에 머물러 있는 노조는 교섭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존재의 의의마저 의문시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노조는 각국의 국제경쟁력 논리에 대응하여(경쟁력 강화라는 명분때문에 각국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통합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으로서 조직건설과 이념개발에 당면해 있다. 노동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초국가적 제도나 국제적 연대에 기초한 노동운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3국의 해외투자동향의 분석에서 볼수 있듯이 각국이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역시장방어를 위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무역마찰대응형 직접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의 직접투자의 경우, 아시아에서 저임금지역을 찾아 NIEs에서 ASEAN으로 투자의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해외투자에는 발전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환경과 노동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초국가적 경제기구'가 형성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초국가적 정치-사회기구'의 미형성으로 '사회적 차원에 대한 요구'의 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지역경제통합의 수준에 상응하는 노사교섭의 장을 설정할 필요성이 증대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합구조의 국제화는 이후 노동운동의 사활을 거는 중요한 과제가 될것이다.

3. 1980년대 이후 강화된 각국의 신보수주의 정책기조(종래 공적 부문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개편하여 시장원리의 이념아래 도입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사회복지의 축소 등이 그것이며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래서 각국의 노조세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등 각국의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유인책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ME혁명에 기반하고 있는 노동계급자체의 분절과 여성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의 증가는 직장에 기반한 전투적 노동운동을 한계에 봉착하게 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초국적기업들의 호텔,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를 노조가 목격하면서도 그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NAFTA의 캐나다 노조는 직업불안정, 실업, 실질소득감소, 가계적자, 빈부격차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역내의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공동된 노동자의 권리나 근로기준<sup>18)</sup>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역통합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구조와 운동이념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3) 지역주의와 아시아민중

1. 아시아NIEs 및 아세안의 고성장, 외채누적과 초인플레이, 마이너스성장 등으로 집약되는 남미NIEs의 몰락, 극도의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제국 등 제3세계의 내부분화는 제3세계를 중심부-주변부적 관점에서 동렬에 놓고 바라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같은 발전도상국의 분화는 일차적으로 초국적자본에 의한 국제분업 체제의 구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초국적 자본에 의한 직접투자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본의 유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후반의 아세안과 멕시코가 그 예가 될수 있다.

2.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나라의 발전전략은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9)</sup>. 그리하여 이들의 새로운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기초해

18) 1994년 6월 7일 국제노동기구(제81차 총회)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가치옹호와 변화의 촉진'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기구가 블루라운드'에 적극 참여한다는 전제 아래 기본적인 노동기준(결사의 자유보장, 강제근로 폐지, 아동고용 금지 등)을 설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무역기구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 대표들은 특히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구협약 제 87·98호 및 아동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138호 등 5개 협약을 국제노동법 수준으로 격상시켜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제대를 가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19) 외채상환문제에 직면한 아르헨티나는 국영기업을 외국자본에 매각하고 대신 외채를 탕



자국경제를 세계경제에 그대로 편입시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지배망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3세계 제국의 경제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구축된 국제분업체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하는 성장의 동력을 분배받는 것이 중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분업구조 구축의 주도권이 초국적자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선택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최근 아시아와 특히 중남미의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지역통합 움직임은 결코 이들 나라의 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심부 국가에의 편입 혹은 중심부 국가 중심의 지역경제권 형성을 보다 조직화하는 기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나라들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의 지배적인 자본분파가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국제분업하에서 자신의 축적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하기 때문이다. 이들 각국이 각지역권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는 각국의 초국적자본에게 유리한 자본축적 조건(사회적 덤핑과 사회조항(Social Clause)도외시)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국내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중소기업자 등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지역통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이지역의 노동시장은 동질적이지 않고, 따라서 노동자위 국제적 이동은 차별적이고 전반적으로 불평등하거나 자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둘째, 초국적자본의 국제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더욱 제한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역시 무력화되어 갈 것이다. 그리하여 노자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셋째, 초국적 자본의 유연생산체계의 변화로 말미암은 임시고용 노동의 증가와 종교, 국적, 인종, 성, 교육, 등에 따른 분단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은 조직노동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시장논리에 기반한 경쟁력강화 논리는 노동부문에 대한 탄압과 억압으로 나타나고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는 자본논리의 강화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러한 경쟁력강화의 논리는 개도국의 개발독재의 정치체제와 결합하여 권위주의적인 억압체제의 재등장 또는 강화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선진국에서는 신보수주의 세력의 강화와 더불어 극우세력과 파시즘<sup>20)</sup>의 재등장으로 나타날 개연성을 현실은 충분히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문제의 새로운 재등장이다. 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내놓은 연례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가운데 잘사는 상위 20%가 전세계 국민총생산의 82.7%를 차지, 못 사는 하위 20%의 GNP합계 1.4%의 60배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상.하위 20%인 구간의 소득격차가 30배였던 지난 60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커진 것이다. 이와함께 제3세계가 선진국들에 지고 있는 부채는 1조4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원조는 오히려 줄고 있으며, 환경문제는 그의 책임소재와 비용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다. 한편, NAFTA의 멕시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APEC에서 선진 미국과 일본계열의 초국적 자본의 엄습<sup>21)</sup>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중속의 문제는 새롭게 부상할 것이다.

## V.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대로, 자본의 국제화와 국민경제의 개방화, 그리고 지역주의의 추세속에서 감받는 신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등 제3세계는 신자유주의시장노선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위주의정부의 근거가 되고 있다.

20) 지난 이탈리아 선거에서 파시즘적 우익세력의 총선승리와 독일 우익나치즘의 활개치는 모습은 이의 근거이다.

21) 최근들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그 가운데서 차지하는 금융부문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1990년 현재 미국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에서 차지하는 은행, 보험 및 유통 부문의 비중은 무려 47.1%로서 제조업의 31.3%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 대한 미국의 직투는 제조업에 집중(43.1%)되고 있다.

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는 자본 및 시장경쟁의 논리가 강조됨으로써 사회적 복지는 무시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과 조건은 하향화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초국적 자본의 세계경제 지배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로운 조건에서의 남북문제의 확대와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자문제의 심화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은 지역의 각국민중운동 세력에게 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보태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연대활동이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국제연대활동과는 달리 EU의 예에서 보듯이 전체 지역의 차원의 조건에 기반한 새로운 차원의 전략과 조직적 계획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실패한 과거의 역사경험과 지역적 연대활동의 일천함, 그리고 한국 민중운동과 그밖의 민간운동이 그간 일국적 문제에만 얽매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그 경험과 토대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미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개별국가의 정책과 행동이 초국적 자본의 전략에 근거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한다면 우리의 국제연대활동은 긴급하고도 주요하게 떠오르는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여기서는 국제연대활동에 접근 할 수 있는 몇가지 측면을 제안함으로써 이 글의 결론을 마치고자 한다.

㉑ 먼저 당장 대규모의 국제연대조직의 형성이 불가능한 관계로 소규모 차원에서의 정보네트워크체계를 세우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연대활동의 주요한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현대 정보, 교통 통신의 발달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국간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슈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연대활동의 교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㉒ 각국 민간운동의 성격과 관점, 경제적 발전수준의 차이, 다른 한편에서는 포디즘적 생산시스템의 유연화와 지역 노동시장의 분절화 등에 대응하여 국제연대의 목표와 방식에 유연성 있는 논리와 행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㉓ 위의 이유와 함께 국제연대활동은 지역통합에 상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헌장'<sup>22)</sup>을 통하여 지역통합의 정치, 사회적 차원의 제도를 확보하는 운동<sup>23)</sup>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단결하여 세워져야 한다.

㉔ 그것은 동시에 광범한 사회세력과의 연대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환경 및 노동, 인권, 문화와 여성에 관련된 광범한 사회세력의 연대에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2) 사회헌장의 내용으로서는 지역경제통합과 경제개발에 따른 고용안정, 생활수준, 삶의 질의 하락위험과 권리 박탈, 빈곤, 환경파괴 등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고 그 골격은 최저기본권 조건, 사회보장, 균등한 사회, 노동기준, 이민노동자의 승인, 작업장 안전, 건강, 환경, 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초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23) 93년 12월 14일 미국노동연맹(AFL), 일본노동조합연합(JTUC), 한국노총 등 서울에서 개최한 북태평양노동조합포럼에서 참석단체들은 중대 일로에 있는 국제경쟁력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주목하면서 보다 나은 고용기회 창출과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국제자유노련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조항'이 삽입될 것을 촉구하고 APEC의 체제에 노동자회의를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국노총, 『사업보고』, 1993.



# The Minamata Declaration

The slogan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as progress. The cry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s survival. The call for the next century is hope. Impelled by that hope for the future and with a keen sense of urgency, we began our concluding gathering of the 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 in MINAMATA.

It is significant that we met in Minamata, a place which symbolizes to all of us development at its most murderous. As it did to the people of Bhopal and Chernobyl, a giant organization with advanced science, technology and production techniques condemned the people of Minamata to fear, sickness and death, and their beautiful bay to irreparable damage. These three disasters — Minamata, Bhopal and Chernobyl — can be taken as benchmarks of our time. At Minamata, the industry of a capitalist country poisoned its own citizens. At Bhopal, a U.S. multinational corporation poisoned the people of the South. At Chernobyl, a socialist government spilled radiation out over its land and people and beyond its borders to the whole world. There is no need here to repeat the long and mounting list of ecocatastrophes. These three tell the story: there is no place to hide.

But these are not the only symbols of the disaster that 'progress' has been. For the indigenous peoples, disaster came with confiscation and exploitation of their lands and resources, and destruction and disruption of their way of life.

For women, development has meant disempowerment of all kinds. They have been marginalized and subordinated by male religion, male science and knowledge, male maldevelopment. The billion dollar pornography and sex industry has reduced them to mere commodities. At the same time, they continue to be subordinated within their own homes.

For the poor of the Third World, development has meant less and less control over their own resources and lives. Their struggle to survive has become more difficult, their existence has become precarious. There has indeed been progress and development, but only for the few. The rest are paying for this development by sacrificing their lives, cultures, values.

Development and progress have been disastrous because they are based on an obsession with materialistic acquisition. Profit and power have emerged as the gods of this development. The assumption behind this development has been that man is supreme, that he can use and misuse Nature as he wishes. Development has been a project to conquer nature, rather than to live in harmony with it.

Development has meant increasing centralization of power. The more the word 'Democracy' has been used, the less has been its practice. For indigenous people and for minorities, democracy has mean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For the poor in the Third World, democracy has meant the rule of the powerful, a very small elite. Both development and democracy have become dirty words for the oppressed because, in reality, they have become to mean impoverishment and disempowerment.

Development has also meant destruction of the rich values of diversity. It has destroyed people's creativity and capacities.

Decisions are made by fewer and fewer. Economic decisions are made by big conglomerates, political decisions by the powerful in our national capitals, or in the capitals of the big powers;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decide what entertainment is and who our heroes are. Governments decide what kind of education our children will have, how many children we will have. Some governments force us to

have abortions, while others forbid it. Some even decide our religion.

Human beings become less powerful, less autonomous, less creative, less human. Small communities and even small and poor nations become less autonomous. They are subordinated by world markets, World Bank policies, the power games of the world power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North and South, has been increasing. In the last two decades, more wealth and resources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Third World than in the entire previous century. The coming decades are likely to witness more rapid accumulation, concentration and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North. Debt payments, profits, royalties, capital flight, deterioration of the terms of trade are among the mechanisms of imperialist exploitation. This unjust, vulgar and ugly development has also created a South in North, with the terrible living conditions of indigenous peoples, racial minorities, migrant workers, and the unemployed.

The 20th century has brought us more, and more murderous wars than at any other time in history. The technology of killing has advanced beyond the wildest imaginations of any previous era. The state, which was supposed to be our great protector, has turned out to be the greatest killer, killing not only foreigners in wars, but also killing its own citizens in unprecedented numbers. The 20th century has perpetuated and intensified the practices of genocide, ethnocide, ecocide and femicide. These practices have occurred in the name of what we have called 'progress' and 'development'.

All these force us to ask, is there not something profoundly wrong with our understanding of historical progress? Is there not something profoundly wrong with our picture of what to fight for? Is there not something profoundly wrong with our image of where to place our hopes?

"Janakasyaba", a word in the Minamata dialect, became familiar to all PP21 participants. Janakasyaba means "a world standing not like this." It is a beautiful word. At Minamata rallies a new song, "Janakasyaba ba hoshikayo" (We want Janakasyaba) was sung.

The Minamata Gathering has shown us that global conditions today have placed the

people of the world on a common ground with a common fat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f we want to survive, live together in dignity and in mutual respect of our diversity without violating each other's autonomy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we need Janakasyaba wherever we are.

At this gathering, we talked about our aspirations for Janakasyaba. Our hope is not an empty one. It is not a mirage. It is born in the midst of injustices, vices and corruption which make us cry and at times make us despair. We discussed the hope which inspires us to fight injustices as well as social, human and ecological decay. We asked ourselves whether there is a basis for such hope.

Life and nature itself is being defiled, not only human beings. Now, the sky, oceans, mountains, rivers, forests, plants, animals and all other living beings are in crisis, their very existence threatened.

We clearly hear the voices of those closest to nature. We have realized that we must fight not only to restore the sanctity of human life, but of all life.

We were born into a world divided into hostile groups. If we want to survive collectively, then these divisions must be overcome. We have met in Minamata and found in each other the will to overcome the structures that divide us.

Here, then, is our assertion: the 21st Century must not be built by these forces of degraded development, but by the forces resisting it. Only then is there hope, not otherwise.

This is precisely what is being acted out before our eyes today by millions of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y do not accept what has been foisted on them as their fate, they are ready to take the leap, and they are taking it. We witness wave after wave of people's movements, emerging, spreading, defying state boundaries, complementing one another, and sharing an increased sense of urgency fostered by new networks of communication. The major struggle of the Korean, Philippine, and Burmese people have shown explosive power. Recently, we have witnessed the rise of a new world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Chinese people.

The recent experience of glasnost has reaffirmed the continuing universal



relevance of participatory democracy, undermined the basis for traditional anti-communism and delegitimized the ideology of the Cold War, thus creating new conditions conducive to people's struggle. However, perestroika may well prioritize economic competitiveness at the expense of support for people's struggle for justice and democracy.

Be that as it may, the changes in the socialist countries provide the opportunity for new alliances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socialist countries for overcoming the East-West division and for working to establish genuine democratic power worldwide.

In these big countries and in smaller ones, in every region, town, and village, the people are on the move. And they are aware of each other as never before, looking after each other, communicating, joining in unprecedented ways. All of this is new. It is the main force defining our situation and the main reason for this gathering. Janakasyaba is the spirit of the people in our time. This is why we do not hesitate, despite everything this century has brought us, to declare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century of hope.

There is another reason for hope. The present system has begun to undermine itself by creating its own contradictions: growth against nature, militarism against the need for collective security, uniformity against cultural diversity, alienation against human dignity, mindless consumerism against humankind aspiring to regain lost values, meaning and spirituality.

The economy has pushed itself to such absurd limits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feeling alienated and lost. All over the world, simultaneously, more and more people are searching for different ways of living in harmony with one another and nature.

These contradictions are pushing forward new historical subjects from amongst the victims of the global catastrophe, i.e., indigenous peoples, women, the unemployed and the self-employed in the so-called informal sector. Alienated youth without much future and the concerned intelligentsia are also joining the historical struggles of the masses — peasants, workers, the urban poor. The mushrooming of people's movements is giving rise to the hope of that we can create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live with dignity.

New conditions support these aspirations. We have the knowledge and the technology. We also have the grassroots organizations, people's spirituality and values, reaffirmed, rediscovered and newly created in the struggle for the survival in the face of the collective suicide imposed by the present pattern of development.

The simultaneous emergence of this global phenomenon has its own commonalities: common interests, common values, and common threats organically linking all oppressed people and exploited groups in the world. A new logic is emerging against the logic of growth, transnational companies and elitist power. This is the true 'logic of the majority.' The majority here does not mean the majority as measured in polls and elections, but the global majority, the most oppressed. It means that they must have the prerogative, and this requires a new set of priorities based on human values and in harmony with nature, culture, gender, indigenous people and other ethnic groups.

A new internationalism is being born out of these local, national, regional popular struggles confronting common enemies. These new movements are growing up within the context of a peculiar contradiction involving the role of the state. Our region is being organized by transnational capital, which is bringing together far-flung and heterogeneous peoples into an integrated, hierarchical division of labor, in which peasants, workers, indigenous people and women are subordinated. States are vigorously promoting this, as the agencies which mediate the entry of transnational capital within their national boundaries. At the same time, transnationalization of the economy undermines the basis of the state. This places its claim to sovereignty and its pretense as protector into question, thus weakening its legitimacy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to intervene. The state seeks to protect itself through intensification of repression and violence, as we see today in many countries, or, as in the case of Japan, intensification of the attempt to implant statist ideology into the minds of the people.

In this same process, the engine of development has overheated in Japan and is running widely out of control, producing a

saturation economy. Japanese work intensely in heavily managed situations in which they are virtually powerless. The Japanese economy does not empower its citizens, but rather seeks to make them powerless and fragmented. And it has also reproduced within its boundaries a 'North' and a 'South.' The 'South' includes millions of poorly paid women part-timers, contract workers, day laborers, and increasingly guest workers from South and Southeast Asia as well as farmers who are rapidly being marginalized.

One of the words which has been stolen from the people and corrupted is the word "democracy." Originally, democracy meant the autonomy, the self-determination, the empowerment of the people. To many people in the Third World, however, it has come to be the label for a facade of "civilian government," disguising state terror and repression in a ploy to claim legitimacy for the state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powerful. For indigenous peoples and other minorities, democracy has been the ideology of "majority rule" that has defined them as "minorities" who could be legitimately ignored.

On the other hand, democracy is something millions of people in the Asia-Pacific region are fighting and dying for. We need to retrieve it to serve the people's struggle. We must begin with the premise that the state, and the institutions that it pretends constitute 'democracy,' cannot be relied upon to bring us peace, justice, a secure and dignified life, or an end to ecological destruction. Only the people's movements themselves, independent and autonomous, can do this. And here we emphasize that we are talking about a democracy that honors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indigenous peoples and other minorities.

At the same time, democracy can no longer be achieved within the limits of the state. Today,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are being controlled, shattered, deformed and destroyed by decisions made outside their communities, even outside their countries. These decisions are made by foreign governments, by transnational corporations, by agencies such as the IMF, the World Bank and big power summits.

Hence, we declare that all people, especially the oppressed people, have a natural and universal right to criticize, oppose, or prevent the implementation of decisions affecting their lives, no matter where those decisions are made. We declare that this right, as a people's right, is more fundamental than any artificial law or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state. We declare that this right of the people to cross all borders, national and social, to carry their struggle to the exact sources of power seeking to dominate or destroy them.

We need to make clear that this right must never be interpreted as justifying the actions of the powerful crossing borders to oppress, exploit and dispossess the people. On the contrary, we are asserting that the people have a right to counter these interventions which are going on all the time.

We recognize that the struggle of subjugated peoples for self-determination, independence, and to establish their own governments, or of people to change or improve their governments, are crucial.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in the long-term, it is the transborder political actions of the people, marginalizing states and countering the power of international capital, that will produce the 21st century that we hope for.

We have no illusion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eoples of the Asia-Pacific region. The ruling powers maintain themselves by dividing the people and encouraging hostility among them. The rulers not only seek to rule us, but also to manage our mutual relations, depriving us of our right to do this for ourselves. This we must reject and overcome. Transborder political action, support and solidarity campaigns across borders will gradually develop a new "people," that transcends existing divisions, especially between people living in the North and South.

This is not utopian: the actions we describe are actually going on all over the Asia-Pacific region, and all over the world. What we assert is that these transborder actions are not merely the proper response of the people to desperate situations. Taken together, they amount to the people collectively making their own 21st century.





현지보고

## 방콕 '민중토론회'를 다녀와서

### 아선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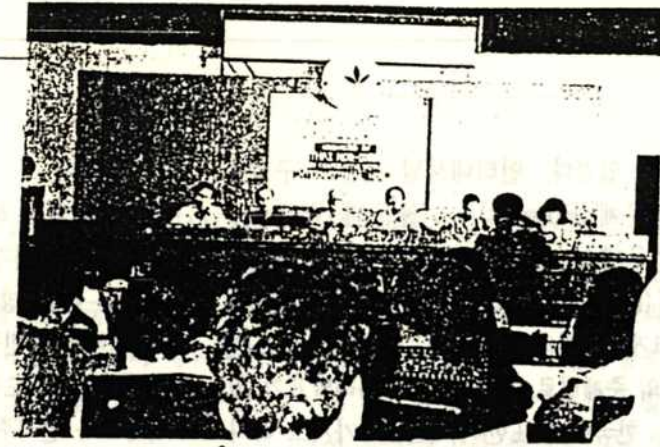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원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  
서울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논문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음.

지난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민중토론회'(이하 PEOPLE'S FORUM)가 열렸다. 포럼은 '타이 포럼'과 '인터내셔널 포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타이 포럼은 8일부터 10일까지, 인터내셔널 포럼은 13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인터내셔널 포럼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그리고 유럽과 북미지역의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를 포함하는, 세계 45개 국가에서 약 4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필자는 인터내셔널 포럼의 사례연구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한국인은 모두 5명이 참가하였는데, 필자와 이상호(군산환경공해시민대책회의 의장), 황상규(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권현렬(한국공해추방운동연합 간사), 하장보(한국환경문제연구소 소장) 제 씨가 참가하였다.

### 민중토론회의 배경과 목적

지난 5년 동안 세계 각국의 시민운동단체와 '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간연구소 등의 NGO들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하

자료 2



사진은 10월 8~18일, 방콕 '민중토론회' PEOPLE'S FORUM 모습.

IMF)의 정기총회와 병렬적인 방식으로 PEOPLE'S FORUM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왔다. 이러한 준비의 결과로 PEOPLE'S FORUM은 방콕에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세계은행과 IMF의 연례 정기총회와 같은 도시, 같은 기간에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PEOPLE'S FORUM은 다른 나라 NGO들의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받으면서 타이의 농촌개발문제에 관련된 14개 NGO가 주관하여 조직되었다. 병렬적인 방식으로 토론회를 조직하고자 했던 이유는 세계은행과 IMF의 제3세계 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폭로작업과 민중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PEOPLE'S FORUM의 목적을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은행과 IMF는 제3세계 국가의 후진성과 미개발 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현대화한다는 미명하에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개발정책을 주도하여왔다. 이러한 개발정책이 집중된 곳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이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혜택은 제국주의국가와 각국의 지배세력에게만 귀속되었으며, 대다수의 민중들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생

태계와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파괴로 인해 고통받게 되었다. 이번 대회의 캐프레이는 "마치 민중에게 관심이 되는 발전인 것처럼"(Development as if people mattered)이었는데, 제3세계 사회발전과정의 문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잘 응축하고 있다. 대회가 열린 태국 역시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신흥공업국의 또 다른 경제성장모델로 여겨지고 있지만, 민중의 생활을 옥죄는 개발정책에 대한 민중의 저항 역시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세계은행과 IMF 총회가 태국에서 열린 것이나, 국제적인 'PEOPLE'S FORUM'이 태국에서 열린 것은 현재 태국이 처한 '이중적'인 상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 대회의 진행상황

대회는 13일 9시에 타이의 비정부단체협의회(NGO-CORD) 의장인 사네 체메릭(Saneh Chamarik)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태국의 한 지역주민이 행한 지역주민 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본격적인 사례발표와 토



론회가 있었다. 인터내셔널 포럼의 구성은 '산림문제' (Forests), '물문제' (Water), '농업문제' (Agriculture), '산업화와 도시화 문제'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로 크게 네 개의 주제를 갖고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주제별로 여러 국가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한국이 발표한 주제는 두 가지로 하나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에서 준비한 「군산 TDI 공장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며 다른 하나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에서 준비한 「한국의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두 가지 모두 '산업화와 도시화' 일정에 포함되었다.

대회 첫날인 13일에는 산림문제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디아, 파프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참여하였다. 둘째날인 14일에는 물문제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디아, 짐바브웨가 참여하였고 마지막에는 댐문제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다. 셋째날인 15일에는 농업문제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태국, 필리핀, 브라질, 나이지리아가 참여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문제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가 사회자이자 미국 '푸드 퍼스트'의 소장인 월든 벨로(Walden Bello) 씨의 기조발제와 함께 시작되었고 한국의 사례연구 발표가 5시경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일본의 발표가 있었다. 16일에는 전날에 이어서 산업화와 도시화문제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대만, 태국, 필리핀, 파프아 뉴기니, 멕시코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마지막 시간에는 인터내셔널 포럼의 폐막식

이 있었다.

사례발표를 하는 기본적인 형식은 연구발표자 1인과 현지주민 1인이 한 조를 이루어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활동을 보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현지주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구체적인 경험사례, 투쟁의 경과와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이에 대한 토론을 조직화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애초에 초청장을 발송할 때부터 각 사례당 2명씩이 초청되었으며 기사연에서도 연구원 1인이, 사례연구 대상인 군산 몰루엔디아소시아네이트(이하 TDI)공장의 철거를 위해 투쟁하는 지역주민 대표 1인과 함께 참가하였다.

17일 오전에는 참가자 전원이 각 지역별 분임토의에 기초하여 작성된 선언문인 '1991 방콕 민중토론회의 선언' (Declaration of the PEOPLE'S FORUM 1991, Bangkok) 이 참가자의 박수 속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에는 세계은행과 IMF의 제3세계 개발에 대한 비판을 각국의 사례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민중과 각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과정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담고 있다.

이어서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제3세계의 관광문제', '제3세계의 부채위기', '토착주민의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개발침략에 대한 응답', '환경과 관련된 국제조약'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갖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국의 참가자들은 '제3세계의 부채위기'라는 주제에 참가하였

다. 홍콩에 있는 자료센터인 다가(DAGA) 소장의 사회 속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참가자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부채현황과 경제실정에 대한 발제를 하였으며 이후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8일에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 현지에서의 활동

15일 오후에 있었던 사례연구 발표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기면서 진행되었다. 한 국가마다 1시간 정도의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주기로 한 처음의 일정에서 공추련의 발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발표에 각각 30여 분씩이 배당되었다. 필자가 준비한 보고서는 30분 정도에 걸쳐서 요약하여 발표되었고 이어서 군산지역주민대표인 이상호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항의편지와 서명운동에 대한 제의가 있었다. TDI 공장 사례연구 발표에 이어서 공추련의 핵발전소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 이후에 질문과 토론을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과 현재의 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토론시간의 제약으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개별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포럼 기간에 회의장 부근에는 사진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우리는 TDI공장의 철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과 국내 영자신문의 관련기사 등을 전시하였다. 사진을 붙이고 그 밑에는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군산지역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주민들

에게 힘을 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서명운동과 항의편지 보내기를 떠올렸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15일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나서 일단 공고를 하였고 그날 밤에 항의편지를 보내지는 제안서와 서명용지 문안을 작성하였다. 다음날 작성된 것을 복사하여 배포하였으며, 17일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에 사회자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서명을 당부하였다. 또한 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정부와 TDI공장 사장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자는 '광고'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서명용지를 취합하였다. 이때 서명용지를 제출한 사람은 약 60여 명이 되었다.

### 보고를 마치면서

포럼 기간 동안에 드는 생각은 한국의 민중운동이 그 운동력의 성장에 비례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네트워크의 강화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왔으며, 한국이 비교적 이러한 부분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주요한 역량은 한국 민중 자신들이라는 전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의 참가 속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역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민중의 투쟁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한국의 민중들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역압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민중들의 저항이 있었다. □



## DECLARATION

## DEVELOPMENT AS IF PEOPLE MATTERED

## People-Centered Development

1. Development essentially involves a search for a better life in harmony with nature. It is both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of every human being.

2. So far it is the state that has undertaken this task; the people are mere recipients of state development efforts. It is thus not surprising that despite the many changes of government, the people's hardship and suffering have never been alleviated. Insofar as there exist within the ruling elite the so-called unusually rich, there are among the ordinary people those who are unusually poor.

3. One way of lessening widespread hardship and suffering is to make the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the center for all development initiatives. With the people assuming this pivotal role, other interested agencies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 as well as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take responsibility for the necessary back-up activities. In particular, they can see to it that the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undertakings are well orchestrated and all resources fairly and beneficially distributed. Both men and women must participate, on equal terms, in such development processes.

4. Thailand is an agricultural country and the foundations for development in this sector are deep-rooted. Government policy nevertheless places an increasing emphasis upo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which has brought about an over-all growth of the economy. But for all its positive effects, this impressive economic growth has made even poorer a large number of people -- those who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be self-reliant and have become pawns in the main current of development policy. They have lost pride in their traditional way of life--in their age-old artistic and cultural heritage. Resources which originally belong to the community have either been usurped or rapidly depleted; and with deteriorating mental health, social violence has been on the increase. While the economy continues to expand, the country is facing a growing social crisis.

5. People must be the target of development efforts. The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these under-takings can be measured only through their responses.

## Lessons from the People in Resource Management

6. Land is a crucial factor of production. Export-oriented economic expansion has led to a greater demand for land for industrial and tourist-trade purposes. For instance, during the past four years, 182 golf courses (an increase of 300 per cent) have been constructed, each covering approximately 1,000-2,000 rai of land. In fiscal year 1990, the reported value of land purchases amounted to 347,853 million baht -- a 75 per cent increase over the previous year. Changes in land tenure have had an extensive impact on rural communities in terms of occupational change, social conflict and quality of land for agricultural use. The state should urgentl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limit and redistribute land tenure, as well as to improve soil quality.

7. Management of large water sources has created a lot of problems, including top-soil erosion, water pollution and displacement. Management of smaller water sources would be more beneficial to rural communities, particularly if the systems are locally initia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local cultural traditions. The weir systems of northern Thailand, for example, are appropriate in terms of both their use of simple technology, their respect for and reliance on natural harmony, and their social-conflict avoidance mechanisms. Other examples include the use of small water sources for integrated farming and fish raising in paddy fields in northeastern Thailand, which is appropriate for both the topographical and the cultural conditions of the area.

Since water is likely to become an increasingly scarce resource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urgently develop more water sources and properly allocate their use. The priority should be the development of small water sources with popular participation in both their operation and the allocation of benefits.

8. The construction of large dams has had a large number of negative effects, especially on the climatic conditions and natural resources in the neighbourhood of the reservoirs. Disputes over the use of water--for agricultural purposes as against generation of electricity--and problems relating to inadequate compensation for those evacuated from flooded areas and resettled in other places are becoming increasingly severe. Moreover, the construction of large dams requires high investment costs, and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normally does not meet the targets. The state should therefore review this policy, seeking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togeth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proper energy conservation policy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nergy use.

9. Deforestation has become critical with the country's forest areas shrinking. All concerned parties unanimously agree on keeping no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land area as protected forests. However, conflicts exist over the use of so-called economic forest lands. This is in fact a misuse of the word 'forest' with its conservationist connotations: the actual aim is to allocate state land for private-sector investment in fast-growing plants as industrial raw-material inputs. The result is that a large number of people lack land for agricultural cultivation and further encroach upon forest reserves.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resettling poor people in degraded forest reserves. The principal agency responsible for this resettlement project is the Royal Thai Army. Starting off in Buriram, a province in the northeast, the project has instigated violent conflict, particularly following the forced eviction of people from their land by government authorities in order to re-allocate the land for fast-growing crops. The project aims to appropriate approximately 8.4 million rai of land for this and it is therefore expected to result in widespread conflict. The resettlement project needs to be totally reviewed and attention should now be directed to the 'community-forest' concept.

This concept is rooted in traditional culture whereby the people depend upon their community forest as a source of food, medicinal herbs, building-construction materials and fuel. The forest is also notable for its biological diversity. The community will be responsible for conserving, developing and making use of its own forest. A survey has been made of 146



community forests in northern Thailand, and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with a view to determining a pattern of efficient and smooth management of community forests.

10. Mangrove forests, seagrass and coral reefs are natural resources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the coastal ecological balance. More than half mangrove forests have already been destroyed, in particular for shrimp farming, starting from the central and spreading to the eastern regions, and then to the east coast of southern Thailand. Extensive environmental damage has been incurred, and conflict between shrimp and rice farmers has also arisen. Shrimp farming is spreading to the west coast of southern Thailand -- now the last resource of mangrove forests. In addition, carelessly and illegally undertaken off-shore fishing has destroyed marine resources including fish, seagrass and coral reefs, with an overall adverse effect on the very livelihood of small fisherfolks inhabiting coastal areas.

However, several fishing communities are beginning to restore their mangrove forests and coastal resources of seagrass and coral reefs. The state should encourage such conservationist efforts and review its promotion of shrimp farming, which, with no concern for pollution control, tends to exploit nature for the benefi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absence of environmental concern is partly due to the desire to lower production costs. The problems which arise are left to the local communities to solve on their own. There should also be a review of the promotion of large-scale fisheries, whil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ocal communities in maintaining and benefitting from their coastal resources should be more widely recognized.

In any event, environment problems are now reaching a critical point, for which the government must urgently find practical solutions.

#### Lessons from the people in the improvement of occupations and livelihood

11. Under the present world market situation, Thai farmers are facing a dead end in modern agriculture. Production costs are soaring but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falling. Heavy use of chemicals damages health and the ecological balance. In addition, modern agriculture with its emphasis on monocropping depends on nonlocal factors of production that continually fluctuate.

Hence, many farmers are already turning to mixed cropping with the primary aim of ensuring their subsistence food supply. Only when they have a surplus do they sell their produce. Farmers are also able to reduce production costs by using appropriate biotechnologies such as botanical pesticides to replace chemicals. This new direction also takes into account long-term productivity of the land by encouraging cultivation of fruit trees, perennial and maintenance of soil and water resources. Another alternative for small farmers is cattle raising.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s new direction is conducive to family harmony by reducing addiction to vices and by encouraging family cooperation. These alternatives also increase their pride and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analyze problems and make their own decisions. Thus the state should encourage these alternatives which confirm local wisdom and potentials. Indeed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based on agricultural alternatives that stress the security of food production and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soil and water.

12. The hilltribes' mode of living is changing, partly because of the government's security and drug policies, and partly as a consequence of the mainstream direction of national development. Such changes are generating alienation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within the community; loss of ecological balance due to monocropping; loss of local varieties of many plants; changes in local traditions due to tourism, prostitution, etc.

However, the hillspeople who have always lived close to nature can develop conservation awareness and help protect community forests if they are allocated suitable land, and if their citizenship is granted and their traditions respected.

13. Like hillspeople, slum dwellers have always been negatively regarded even though they make up the majority of the urban labour force. They have their own ways of developing themselves and solving community problems. They have a stronger community awareness and interdependence than most urban dwellers. Their main fear is eviction which implies a deprivation of their sources of income. Some cases of eviction also involve violence. Slums are a consequence of the mainstream development that emphasizes economic growth which in turn leads to urban migration. Such growth also leads to soaring prices of land which, in its turn, leads to eviction. Slum dwellers are being forced to move to suburbs. This uprooting may be never-ending unless problems of unbalanced development and housing are given serious consideration.

Furthermore, legislation concerning slums must take into account the opinions of slum dwellers, and their collective efforts in community development, as well as in solving housing problems, must be promoted.

14. Women's development that uses local weaving as its main strategy is an example of a development direction that is based on local traditions. It is therefore in accord with the ways of life of the people and gives them an opportunity for self-reliance within the mainstream of development. Beside augmenting income, weaving gives women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with regard to improving their weaving skills, techniques and marketing ability, and to encouraging a broader understanding of society. Local weaving also promotes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ships, and reduces problems of labour migration. Above all, weaving expresses women's pride in self-reliance and in their ability to continue cultural heritage.

#### SUMMARY

15. Natural resources will become more scarce, while the competition for them, both direct and indirect, will intensify. Economically powerful countries will increase their efforts to centralize resource control, and to use every mean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to safeguard their advantageous positions and interests. In the meantime, third-world countries have become instruments of these processes despite their full right to develop their own directions.

Regardless of immediate interests, the authorities must exercise great care in considering the advice of powerful countries, and firmness in meeting pressures imposed by them. Thorough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effects on people and



natural resources. Similarly, the World Bank should listen to Third World people's voices and pay proper attention to ecological effects when they analyze and evaluate projects that have been forwarded for their financial support.

16. These problems will become more complicated in the future and it will be impossible for any one party to solve them alone. Solving problems should involve participation on the widest scale. The people themselves must be the foundation and center for all development strategies. Decentralization of power over resource management is essential, together with an acceptance of the value of local wisdom and culture as well as that of modern technologies. Community organizations should hold the status of juristic persons.

17.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listen more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people. Distribution of power and more people's forums are the answer to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heterogeneous problems of this day and age, and will lead the country towards a progres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eople's Forum  
October 10, 1991.

●국제

연지보  
고

# 국제연대 깃발을 올린 방콕민중회의

방콕에서 열린 전세계 민중운동 실무자들의 모임은 보수의 바람이 부는  
오늘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민중의 건강한 운동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회의에 직접 참가한 필자로부터 전세계 민중연대의 목소리를 전해 들어본다.

## 자료 4

이선태(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상임연구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는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계획'(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 약칭: PP21)이라는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제1회 대회가 1989년도에 일본의 미나마타에서 열렸으며 이번의 PP21은 제2회 대회가 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42개 국에서 약 4백70명의 성원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계층별로 나누어서 진행된 부문토론회(Sectoral Forums)가 방콕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 분산되어 12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6일부터는 주제별로 본토론회(Main Forum)가 방콕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행동의 날'로 명명된 12월 10일에는 방콕 시내의 중심부에서 국제적 연대집회와 시가행진이 있었다.

### 역압이 있는 모든 곳에 민중의 투쟁이

필자가 방콕에 도착한 것은 12월 4일 오후. 당시 서울에서는 대통령후보들의 텔레비전 유세가 막 시작되면서 대선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고 있던 때였다. 14대 대통령선거가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이기에 그 '역사적 현장'을 잠시나마 떠나 있는 것이 아쉽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민중의 투쟁'을 배우고 토론한다는 설렘이 중첩되고 있었다. 방콕에서 제일 처음 만난 이는 태국의 '운동권 학생'이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PP21 참가자를 환영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이는 '태국학생연합' 소속의

대학생이었다. 우리로 치면 '전대협'이다. 이번 대회의 진행과정에서 청년단체와 대학생조직이 행사준비의 실무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학생의 안내를 받은 후 돌아서면서 들은 생각이 '운동권 학생'이라는 우리나라의 통념이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었다. 물론 많은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기에 단순한 비교가 무리겠지만 적어도 외모에서는 소탈한 웃음이나 남루한 옷차림 등이 흡사 70년대나, 80년대 초의 우리 대학생들을 연상시켰다. 대회기간 내내 인종과 언어가 다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서도 진지함과 넉넉함이 넘쳤던 것은 바로 이러한 친근감과 공감대 때문인 듯싶다. 우리가 동지(同志)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신뢰감은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절대로 벽이 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제국주의의 황포에 반대하였으며 고통받는 민중의 진보적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말 그대로 동지였다.

### PP21의 목적과 배경

PP21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30여개 국제연대단체의 조직적인 후원하에서 태국의 10여개 민주인권단체들이 주관하여 조직되었다. 참가자는 대륙별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비정부단체(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로 약칭)와 대중조직(People's Organizations, PO로 약칭) 성원들이 많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유럽과 북미지역이 그 다음이었다. 42개 국에서 참가를 하였기에 대부분의 주요한 나라들을 포함하였다.

이번 대회 참가단체들의 성격도 다양했다. 발전문제나 여성문제, 이민노동자문제 등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대회 대표들이  
민중기념탑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갖는 조직들과 각국의 부문대중조직이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 국제YMCA연맹 등의 세계적 수준에서 조직망을 확보하고 있는 진보적 종교단체들도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번 대회의 성격은 각 부문과 주제영역 그리고 지역을 망라하는 규모와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탓으로 참가자 및 참가단체의 이념적인 폭도 넓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적 지향을 명백히 하는 그룹부터 자유주의적 색채를 띠는 단체까지를 포괄하였다. 그들에게 공통점은 제1세계의 제3세계 지배에 대한 반대와 세계의 평화, 민중의 권리와 인권, 환경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보여지다시피 PP21은 현재의 세계체제와 지배구조를 뛰어넘어 21세기를 내다보며 민중의 새로운 대안적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제1세계가 경제발전과 평화의 미명하에 제3세계에 퍼붓는 억압과 착취를 종결 짓고, 일국적 차원에서는 지배계급이 보이고 있는 민중에 대한 착취와 경제적 불평등구조를 종결 지어야 한다는 것이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서방선진국회담(G7회담)의 전유물로 되어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정부간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와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그들의 이해를 실현시키는 통로가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각국의 민중운동단체들과 비정부단체들이 일국적 범위를 넘어서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은 이처럼 인류의 대안적 미래를 위해서는 상식적이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에게 전망을, 민중에게 힘을"**

이번 PP21의 주제는 "민중에게 전망을, 민중에게 힘을"(Making the People visible, More power to the People)이라는 것이었다. 이 슬로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민중이 미래의 대안이며 독립된 주체로서 의연하게 부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중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중을 중심에 두는 사회구조와 세계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은 우리의 현실과도 부합될 것이다.

대회는 크게 두 부문의 일정으로 조직되었다. 11월 20일부터 본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12월 5일까지 노동자, 농민, 여성, 도시빈민, 원주민, 청년 및 학생 등으로 나뉘어 부문별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부문적 성격을 갖거나 특정주제에 관계하는 단체와 부문토론회에 참석했던 대중조직성원 등의 전체성원이 참석하는

본토론회가 이어졌다. 본토론회에는 민주주의와 개발, 제3세계 관광산업, 평화와 인권, 소비자의 권리, 참여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의 대안, 핵문제 등의 광범한 영역에 걸친 주제토론이 있었다.

본토론회에는 이삼열 교수(숭실대 철학과)와 필자가 참석하였고 부문별대회에는 노동자포럼(11.29~12.3)에만 노운협외 송병춘, 이성경씨 그리고 전노협에서 신은철씨, 여성노동자회에서 이영순씨,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진방주 목사 등 5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통역을 위해 2명이 참석하였다. 부문별토론회에서 노동자토론에만 참석했던 것에 대해 참가했던 한국사람들은 물론 전체 성원들이 아쉬워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은 민중운동의 경험이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하다. 특히 학생운동이나 청년운동의 경우에는 외국에 소개도 많이 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요구가 강했다. 노동자포럼의 경우에도 브라질 등 조합주의적 전통이 있는 나라나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운동수준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고 한국에 대해 외국 노동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지대하였다. 이제 한국의 민중운동도 조금씩 국제적 연대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아쉬움을 더욱 진하게 하였다.

본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날인 12월 5일 저녁에 전야제 행사가 있었다. 태국의 민속무용 공연이 있었고 태국의 주최자들이 PP21의 배경과 준비과정에 대한 소개 및 환영사를 했다. 태국의 민주단체성원들에게는 6개월 전 민주항쟁의 흥분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축시를 낭독하던 태국의 청년이 5월의 상황을 읊을 때는 그 자신도 떨리고 있었다. 이어서 태국의 민주화운동 상황과 민중생활 그리고 5월민주항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우리가 80년 광주민주항쟁을 겪으면서 느꼈던 고통과 분노처럼 그들에게 있어 5월민주항쟁은 하나의 성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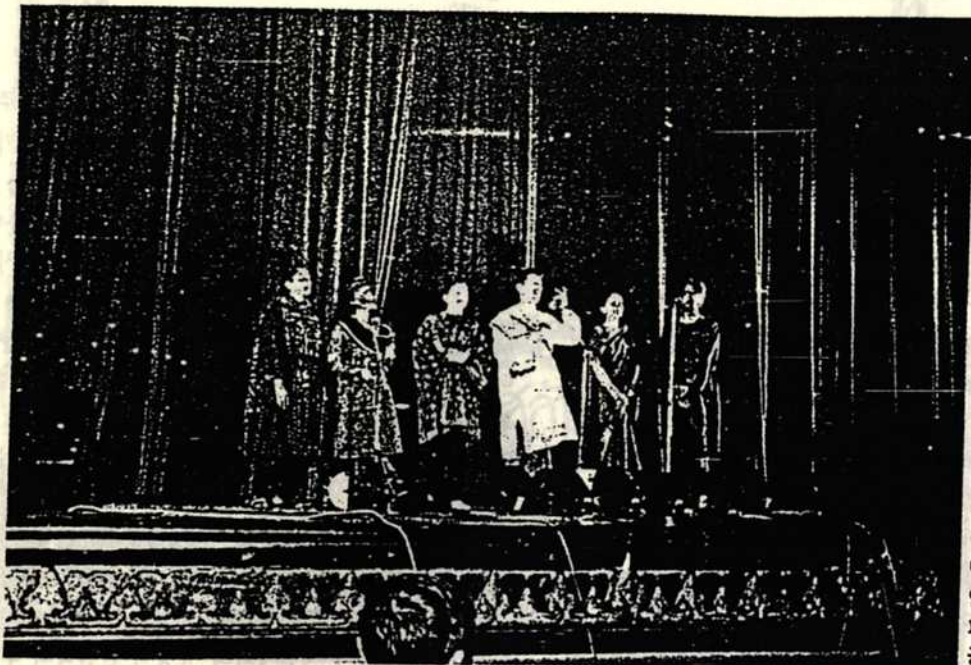
12월 7일 오전에는 세계정세를 개괄하는 발제가 있었으며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민중연대의 실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사회주의국가들의 노선수정 이후 민중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각국에서 비슷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략의 내용은 "세계는 전환기에 있으며 이것은 인류가 2차대전 이후 한번도 겪지

못한 일이다. 냉전의 종식과 동구 및 소련사회주의의 몰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주도하는 '신세계질서'로 종결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관세 및 무역협정 등을 통해 그들의 '시장의 힘'을 전세계에 독점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북과 남 그리고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걸프전에서 보듯이 미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전개에 대한 민중의 대안과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보수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토론내용은 후에 「방콕선언문」에도 게재되어 서민사회의 성장이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서 절실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결론으로 제출되었다.

오후부터는 몇 개의 장소로 나뉘어 주제별 워크숍이 있었는데 참여민주주의, 자원관리와 생태계 복원, 새로운 사회의 대안, 원주민의 권리와 1993년 원주민의 해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는 각국의 참가자들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나라가 많았다. 서아시아지역이나 동남아시아지역 등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요소가 부재한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정의하거나 모색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반면에 니카라과나 남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경험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참여'라는 개념규정 자체가 논란이 되었다. 마르크스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참여민주주의의 문제는 정권의 성격이나 계급적 범주의 문제로 거론되었다. 스리랑카에서 정역을 7년 동안 살았다는 한 활동가는 레닌과 모택동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경험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 참가자들의 범위가 다양하고 경험이 다양한 탓에 결론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선거 등의 형식민주주의의 내용을 제외한다면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민주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개





민속의상을 입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대표들이 공연하고 있다.

살구'라는 것이 토론되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토론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인 사회체제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는 못하였고 기존의 사회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검토되었다. 참석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전체주의적 성격, 계획경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치더라도 현존의 자본주의 국가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에서 진행된 사회주의사회, 포스트마르크스주의는 쟁과 쟁을 같이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횡포에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세계체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한계 지우는 것에 고민이 모아지고 있었다. 저녁시간에 만난 토니 에디라는 영국인은 현재 폴란드와 체코 국경지역의 한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에 대한 실험에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그 자신이 유럽의 산업선교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 문제에 향후 몇 년 동안 초점을 맞추겠노라고 이야기하였다. 현재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지방자치 형태로 시장사회주의와 공동체의 양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역적인 특수성과 역사적 전통으로 현재까지 상당한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방콕선언문의 채택

12월 8일에는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각 부문간 연대를 실현할 방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남-남연대, 북-남연대, 도시-농촌연대 세 가지의 차원에서 경험들이 소개되었다. 이 토론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 '희망의 연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프로그램과 활동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주의적 경향, 인종주의, 국수주의 등이 민중연대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대회기간에 인도의 종교분쟁이 진행되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연대의 경험으로는 태국 남부지역의 어부들과 말레이시아 북부지역의 어부들이 다국적기업의 대형어선에 의한 남획에 반대하는 공동투쟁이 보고되었으며 아시아지역의 농민들이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 파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2월 9일에 주제별워크숍이 계속되어 핵문제, 미얀마와 동티몰사태에 대한 민중재판, 관광문제, 새로운 국제무역, 소비자의 권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영역에서는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압력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국제

적으로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PARC)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결의가 있었다.

12월 8일과 9일에는 약 20일간의 대회를 마감하면서 발표할 「선언문」에 대한 초안작업과 초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이 진행되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완성된 「선언문」에는 그간에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결론 지워진 것, 새로운 과제 등이 언급되었다. 12월 10일은 국제적인 '행동의 날'로 명명되었고 우리의 공동행동이 태국의 민주화운동이나 우리의 요구들을 널리 알리는데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토론이 있었다. 11일자 방콕의 일간신문들은 10일의 가두시위를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하였다. 10일이 지정된 것은 이날이 세계인권선언일이며 동시에 태국에 민주헌정왕정이 수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었다. 태국에 있어 이날은 마치 우리의 8·15 광복절과 같은 새로운 출발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 모두가 고대했던 '행동의 날'

9일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정이 새벽 5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새벽 5시에 출발, 6시를 전후하여 참가자들이 모인 곳은 방콕의 민주기념탑이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차가 많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차도를 건너서 기념탑 밑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묵념과 헌화가 있었으며 불교의식에 따라 준비해온 음식을 승려들께 나누어주는 행사가 있었다. 소승불교가 발달한 태국에서는 모든 승려들이 밥을 빌어먹는 것이 규율로 되어 있다. 태국에서는 이른 아침이면 밥을 얻으러 다니는 승려들의 행렬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행사에 승려들이 특별히 초대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민주기념탑은 지난 5월민주항쟁이 진행되었던 장소였기에 참가자들의 감회가 적지 않았다. 한 태국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아직도 그때 총탄으로 깨졌던 유리창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총탄의 흔적이 선연했다. 흡사 아직도 상처가 가시지 않은 광주의 금남로를 연상시켰다. 다음 행사가 열리는 타마스트대학교까지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한 태국인은 우리 신문에도 언급되었던 로열호텔에서의 학살 등 지난 5월의 투쟁

과정과 투쟁현장을 설명해주었다.

타마스트대학교에서는 오전 9시경부터 문화공연이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인도첸'이라고 불리는 태국의 보컬그룹이었다. 우리로 치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도가 될 듯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전자기타나 전자오르간 등의 악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4인조밴드였는데 태국의 대표적인 민중음악그룹이라고 했다. 이어서 일본의 민중가수 켄 모리타의 공연과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의 참가자들이 틈틈이 준비한 민속공연 등이 있었다.

오후가 되면서 가두시위가 시작되었다. 준비했던 플래카드에는 영어를 포함한 여러 나라 말들로 다양한 구호가 담겨 있었다. 미얀마 학생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썼으며, 여성단체의 성원들은 여성의 권리증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9일 본행사를 마치면서 외국인 참가자들은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으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던 탓에 준비가 가능한 외국인들은 전통의상을 착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두시위행렬은 마치 축제분위기처럼 울긋불긋했다. 필자는 마땅한 옷이 없어서 지난해 범민족대회 기념티를 입었다.

시위행렬이 다다른 곳은 민주기념탑이었다. 민주기념탑을 중심으로 하여 집회가 열렸는데 PP21 참가자 및 태국의 대중조직 성원들이 주를 이루었다. 집회장소가 서울시청 앞의 분수대처럼 교차로의 중심부였기에 일반시민들의 접촉은 용이하지 않았지만 차도 건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회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회에는 「방콕선언문」의 공식적 채택과 여러 국가에서의 연대사, 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징한 1인극 등의 공연이 있었다. 마지막에 민중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풍선을 하늘로 날렸고 참가자들은 손을 모두 잡고 '세계는 하나'(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세계의 평화와 민중의 해방을 기원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

이선태 / 1964년 충북 청원 출생. 89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92년 동 대학원 졸업. 저서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며」(공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연구」(공저).



# 자료 5

## 방콕 선언 - 1992년 12월 9일

편집자주 - 이 자료는 92년말에 방콕에서 개최된 제2회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계획, 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 행사에서 채택된 선언문이다. 본대회에는 42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였다.

### 전 문

우리, 1992년 12월 6~10일 동안 방콕에서 개최된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계획> 회의 참가자들은 모든 지역과 대륙, 42개나라의 민중운동과 네트워크, 국가, 지역, 국제적 비정부단체(NGOs)와 연대집단을 대표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투쟁과 연대와 희망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민중의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PP21의 탄생으로 기록되는 미나마타 선언(1989)을 우리자신에게 확인하는 정신으로 모였다.

미나마타 이후 지방과 국가 그리고 지역과 초대륙적 수준에서 민중과 민중의 연대와 과정은 경계와 문화를 가로지르면서 실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는 미주대륙에서 원주민, 흑인, 민중의 저항운동 간의 관계의 증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서 PP21그룹의 태동이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농민으로서, 청년과 학생으로서, 원주민으로서, 도시빈민으로서, 그리고 평화와 인권, 참여민주주의, 기층민중의 발전, 대안적 문화, 대안적 관광산업의 지지자와 활동가로서 만났다. 태국의 다양한 곳에서 개최되었던 이러한 부문별 활동과 부문이 결합된 활동들을 통해 나타난 만남과 경험 그리고 사상과 활동계획들은 우리가 다양한 방식-시, 노래, 영화, 전시

물-을 통해 우리의 삶과 투쟁의 경험들을 공유한 방콕에서 열린 본토론회로 결집되었다.

### PP-21 : 미나마타에서 방콕까지 : 희망의 연대를 새롭게 함

PP21은 우리의 존재 기초에 도전하는 중대한 세계적 민족적 변화의 중심지인 태국에서 거행되었다.

소련이 붕괴되었다. 국제적 자본주의체제는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전에 없었던 세계적인 힘의 집중이 미국과 G7이 실제상으로 정치제도와 경제자원, 군사력, 정보, 기술생산과정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면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가트,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조직들은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사회적 소외집단의 기초적 요구와 생존에 무책임한 다국적 협력의 지배를 공동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국제연합(UN), 특히 안정보장이사회는 걸프전과 이후의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외정책의 도구가 되었다. 세계적 지배체제의 통합은 삶의 각 영역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국가통제와 지배의 전체유형이다. 지역의 모든 정부들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억누르는 광범위한 힘으로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상징적 체제나 빈껍데기의 형식으로 되었다. 기본적인 민중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계속 부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부정은 아마도 군사 통치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인간의 가면을 쓴 권위

주의가 횡행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중적 빈곤과 노동과 환경에 대한 가공할 만한 착취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나라 지배자들은 그들 힘의 영속을 역설하며 민중의 기초요구와 기본적 권리의 비용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자본의 파멸적 지배력과 우리에게 '경제적 기적'으로 지지되었던 신흥공업국(NICs)들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빈자들에게 오히려 슬픔과 궁핍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공동체나 국가 혹은 국제적 수준 어디에서도 부정의한 구조는 망하고 붕괴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의 확신은 순진함의 발로가 아니다. 인본주의의 정의로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어떤 이상주의적 꿈의 산물이 아니다. 미나마타 이후 지난 3년동안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성장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6개월전에 비무장한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총과 탱크에 맞서 싸웠다. 이나라의 민중들은 대도시의 시가지와 소도시 또는 농촌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들은 국가권력에 도전하면서 다시한번 비폭력대중투쟁의 힘을 보여주었다. 피와 눈물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도덕적 용기와 참여민주주의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원천적인 존엄성을 재차 선언했으며 그들 자신의 힘을 발견하였다.

미나마타 이후 태국민중의 투쟁은 아마도 지역적 차원에서 민중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우리는 폭력과 독재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계속되는 투쟁, 원주민들의 생존과 그들 문화적 윤리적 자부심과 자연과 인간성 사이의 조화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 땅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 보다 정의롭고 인간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 거주지 확보를 위한 도시빈민들의 투쟁,

그리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청년과 학생들의 투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투쟁들은 각성되고 있는 민중의식의 단면이며, 부정의하고 불공평한 현존질서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심장에서 박동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투쟁은 민중들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 행로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증명해 주며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투쟁들의 중요성은 그것의 삶에 대한 심오한 연명이다. 아시아가 전세계적인 중요한 정신적 도덕적 전통의 산실이기에 이러한 연명은 큰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이러한 투쟁들은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원주민의 가치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들의 핵심은 삶의 전망이며, 정의와 사랑과 열정의 감화 속에 살아 있다. 이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동력화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다. 재해석은 그들의 인간성을 재차 주장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에서 공명된다.

우리의 인간성을 재차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우리를 부와 권력의 노예로 붙잡아 매는 공동체, 국가, 국제적 차원의 부정의한 구조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참여민주주의를 이루고 진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치된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기층민중들의 주도권과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민중조직의 연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이 지역이나 국제적 수준에서 국경을 초월할 것을 요구한다.



## 연맹의 건설

연맹의 건설은 PP21의 장기적 목표인 희망의 연맹, 즉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의 권력에 싸워 이기는 세계적 민중의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권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층민중,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민중운동의 연맹을 만드는 것을 향해 나갈 것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맹은 국경과 부문적 조직적 관심을 뛰어넘는 우정과 소속감의 교양에 근거한 민중대 민중의 접촉에 기초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서로의 투쟁에서 배우고 이미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교와 연대를 강화시키려는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단지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노력 속에서 다른 문화와 경험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원하고 기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민중들과의 언어와 의사소통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모든 영역에서 재기되는 노력과 대안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PP21은 비정부단체들과 지지조직들이 지원하는 민중 조직들과 민중들의 참여와 주도에 기초한다. 이것은 연맹건설의 핵심이며 이속에서 우리는 민중의 활동에 기반한 구체적인 안전들을 독려한다.

우리는 92년 태국 PP21의 참가자들로서 우리자신들에게 부문과 주제토론에서 채택된 다음과 같은 제안과 활동계획들을 구현하기로 약속한다.

### 정보의 교환과 확산

우리는 우리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것들의 중요성과 많은 이유에서 급변하는 현실과 동향, 모든 범위의 경향성들을 뒤지지 않고 따라가야 한다. 하나는 정보가 점점 우리들에게 차단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우리들의 접근을 방

해하는 고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지방, 사회, 지역들에 초국경적 태도로 대항해야 하는 사업상의 확일적 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의 지식과 경험, 투쟁으로부터 배우고 이에 기초해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가깝게 하고, 우리 각자의 투쟁을 서로 강화시키는 조화로운 공동활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정보의 확산은 단지 기계적 이동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며, 민중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충격을 주는 사안들의 복합성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이념이나 분석이 학문적인 언어로 제시되지 않고, 해당되는 영역들이 그러한 분석과 정보를 활동목적을 위한 쉬운 민중적 언어로 획득할 수 있도록 적당한 의사소통전략이 구사될 필요가 있다.

본 토론회동안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광범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확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농업, 현물농약, 제약에서 생물공학의 충격과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의 암시
- 지역 비정부단체의 목록과 그들의 독자적인 기술과 자원, 관심영역
- 성매매(sex trade)와 성산업
- 원조, 무역, 채무와 구조조정
- 발전과 유지능력에 직접 관계된 환경문제

### 압력활동, 옹호와 연대활동

다국적 협력에 대한 책임성과 수요를 위하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증진시키는 정부에 대한 요구는 계속 표현되었다. 연대행동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일들은 다음의 자유 연합의 권리, 인권의 보호와 증진, 자원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는 요구들이다.

## 남남, 남북동맹의 건설

우리는 마을단위에서 국제적 단위까지 부문을 넘어선, 부문과 부문간의 동맹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의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태국 남부와 말레시아 북부의 어민들 사이에 그러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진행중인 초국적 활동은 아시아의 농촌과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청년과 학생들의 참가자들은 농민들과 원주민들과 연계하기로 했다. 북의 소비자들(예를 들면 일본)과 남의 생산자들(니그로의 사탕노동자) 사이에 긍정적인 무역관계가 성사되었으며 더 발전되려고 하고 있다.

본토론회에서 우리는 많은 초국경적 활동과 서로다른 나라의 집단들에 의해 조직된 일들을 배웠다. 이것은 다양한 주제와 관심사항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보호, 구조, 합법적 지원, 상담, 통합 등을 위한 상호 지원연계망의 강화; 이민여성노동자의 매매뿐만 아니라 태국의 여성들처럼 국제적 육체매매의 희생자(일본 동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로 전락한 여성들을 위한 상호지원연계망의 강화
- 1993년 11월 25일, 성과 부문, 문화와 민족경계를 횡단해 여성들에 대한 폭력범죄를 강력히 비판하는 여성연대
- 1993년을 원주민의 해로 제정, 원주민과 산악부족민을 지원하는 민족적 국제적 동원

## 초문화적 동맹건설

우리는 인종적 국수주의, 지역주의, 인종주의적 경향의 성장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문화와 우리들의 다양성을 존경하고 풍부히 하는 데에 기초하여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

### PP21을 잇는 후속행사

우리는 지역 집단의 연대를 갖고 공동작업을 통해 지역적, 민족적, 초부문적인 PP21 과정들을 계속 강화시킬 필요를 갖는다. PP21의 과정을 계승하는 최소한의 지역적 차원의 후속작업들이 제기되었다. PP21의 미래를 계속하고 결정하는 지역적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개의 특별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들의 주소록을 준비하고 PP21의 일정들을 널리 알리는 일
- 태국 PP21 행사의 자료들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은 참가자들 스스로의 과제로 제안되었다). ♣



People's Alliance For Social Development

자료 6

International Meeting of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For Social Development

Santiago of Chile, April 20-22, 1993

INTERNATIONAL MEETING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FOR SOCIAL DEVELOPMENT

ALLIANCE OF THE PEOPLE FOR SOCIAL DEVELOPMENT

I.. CONCEPTUAL FRAMEWORK

1.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were summoned for a meeting at Centro El Canelo de Nos to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the social world's participation in the Social Development Summit. Attendants to this meeting formed an Organizing Committee that will summon other institutions to constitute the ALLIANCE OF THE PEOPLE FOR SOCIAL DEVELOPMENT.

2. At the Meeting, held on April 20, 21 and 22, 1993, NGO's agreed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development in terms of an integral concept involving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bearing in mind the significance it is assigned in relation to the reality of the different continents.

In Africa, for instance, the need for integral development has connotations that differ from those in Europe or Latin America. Despite having the same objective, priorities and strategies must conform to the context and to the social reality.

3. From this perspective, one of the Social Development Summit's main concerns should be the eradication of poverty. Poverty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the limits of material survival but also as the situations of helplessness affecting peoples as result of civil and ethnic wars,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dentity crises,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his all leads to phenomena such as massive migration, political instability or simply the disintegration of national States.

4. In other words, aside from contributing to overcome poverty, development should substantially increase humankind's standard of living in every dimension. Since destitution and underdevelopment are slowly penetrating the developed and industrial North, these issues have become a "world security"



problem. The greatest causes for insecurity in today's world are not external aggressions or military conflicts, but rather the devastating action of poverty and marginality.

5. In each country, this issue should be responsibility of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the church, workers, entrepreneurs, women, youth.

The countries traditionally called "underdeveloped" should be aware that economic and social crises, poverty and inequity and the exclusion from international markets are not solely caused by the action of the developed North. They may frequently be caused by an incapacity to propose and execute creative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feasible projects. However, we cannot disregard the objective obstacles imposed on this development by colonial or dependent policies implemented in cities and, later, by the concerted action of transnationalized economy.

6. Society's current evolution, which has turned the world into a large global village, makes an urgent deman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o undertake development cooperation. Both industrializ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with weaker economies need to join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he achievements of economic, social, political,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 II. THEMATIC DEFINITIONS

7. It was clear at the Meeting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Rio de Janeiro Global Forum o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that in order to produce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Summit, NGO's and the social world must design a well structured agenda to pose the top priority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all seriousness, with analytical depth and accurate objectives. Only thus shall real impact be caused in public opinion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and in Social Summit resolutions.

8. Participants agreed to define the issues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idea of development as an integral and broad concept. Thus the following issu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declaration:

a) Promoting equity and social justice. The fundamental role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is to foster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policies to support poorer sectors, in order to increase their income levels and to obtain better standards of living.

b) Strengthening civil society in order to thrust social development from its base, understanding civil society as the organic set of social and political agents capable of generating their own initiatives, establishing a link of greater equality in regard to their relation with the State.

c) Promoting the people's sovereignty and the people's governability capacity, affirming the individual right to generate democratic governments to allow full and effective social participation.

d) Targeting the structural causes of poverty as a fundamental step in the search for new development strategies to overcome current models, searching for permanent solutions, without blaming victims for deficiencies caused by an unfair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e) Stimulating pluralism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people by sustaining the social value of tolerance for greater integral development by and for the people. This implies achieving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to ensure a fair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of development by implementing the values of ethics and solidarity in the economy and politics.



### III. NGO'S AND CIVIL SOCIETY

9. Participants defin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s institutions inserted in and representative of civil society. Their structure and closeness to grass roots enable them to formulate proposals and projects within their own and diverse field of action. They are acknowledged as efficient and flexible institutions, capable, ultimately, of generating development based on actual experience in society: micro-enterprises, women, adult education, indians, youth, health and others.

10. Being established institutions with direct contact with grass roots groups and with experience in business administration, NGO's may serve as mediators between civil society and State interests; and given their link with cooperation bodies, they can relate fluently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have the capacity to link and harmonize different, and sometimes opposing, interests.

11. From this viewpoint, NGO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 of the Social Development Summit has been perceived as an institutional presence that picks up the needs and desires of popular sectors and of the less organized social world that will ultimately be the subjects of development.

The diversity and number of NGO's in different world regions is large and varied, so it is estimated that one strategic decision would be to look for mechanisms to determine the participation of NGO's and the social world in the Summit by an active preparation process. This process should be highly participatory, socialized and strengthened by debates on the proposed issues, and enriched by development agents in each region, country or locality.

12. The role of NGO's and the social world in the Copenhagen Summ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excellence of proposals, which will be the result of a discussion and feedback process at the different discussion levels, leading to the preparation of an abstract to be presented at the Summit, with great conceptual depth, representativity and originality.

### IV. WORK MECHANISMS AND PLAN OF ACTION

13. Organizing Committee. It was agreed at the Meeting that participants summoned to the Canelo de Nos meeting should form the Organizing Committee to disseminate the Meeting's final declaration, to prepare a report on its basic contents, to establish the conditions for fuller participation of other organizations, and to finally conform Regional Consulting Committees and then coordinate their plan of action.

This Committee shall define the best strategy to achieve the proposed objectives which are to exert positive influence on the formulation of the Summit's Agenda and to help their proposals become resolutions during the course of the meeting.

To achieve more efficient work, it was decided to establish a Secretariat in Santiago, Chile, integrated by the South American Peace Commission and Consejo Internacional de Educación de Adultos.

14. Regional Consulting Committees. In order to favor organizational aspects, foster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ith national and local organizations, regional consulting committees were established in the Asia-Pacific areas, the Arab World, Africa, Europe, Latin America and North America. NGO's and social actors's contributions to the Social Development Summit shall actually take place at reg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15. Institutional Relations. The efficient participation of NGO's and the social world in the Summit shall depend on the relations established with the United Nations Political Organizing Committee, ECOSOC, UNDP and others, to formally participate in the preliminary meetings and to submit to them the respective proposals.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Summit's official preparation process is a basic condition for contributions for the "Alliance of the People" to take place. In addition, regular commun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respective regional organizations.



The same efficiency in the work of NGO's will be obtained insofar as they are capable of influencing the view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which shall in the end decide the contents of the Summit's resolutions.

16. Financing. The preparation process of NGO participation in the Social Development Summit considers financing sources to enable the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work plan for the achievement of their objectives. Therefore, it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of Regional Committee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committing the necessary economic contributions of United Nations, the European Communities, Found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ies.

El Canelo de Nos, Chile, April 1993.

자료 7

##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아시아민중의 대응

기사연의 이선태 연구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방콕에서 잇달아 열린 PP21 등의 3개 회의에 참석하였다. 다음은 회의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이며 회의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1. PP21 APEC WORKING GROUP MEETING (4월 29-30일, 장소: SCC)

#### (1) 배경과 목적

PP21(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민간차원의 연대조직으로 1989년에 1회 대회를 일본의 미나마타에서, 2회 대회를 92년 방콕에서 조직하였다. 각각의 대회는 거의 모든 부문과 지역을 포괄하는 큰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93년 5월의 방콕모임을 통해 COORDINATOR TEAM(CT)을 조직하고 이후의 활동을 계획한 바 있다. 93년에는 내부의 몇가지 이유로 활동이 지연되다가 93년 11월 말에 기사연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CT MEE-TING을 통해 94년의 활동계획을 토의하였으며 이번에 열린 방콕의 회의도 당시 결정에 의거한 것이다.

서울에서의 회의 결과로 94년에 아태지역의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APEC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응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94년 11월에 열리는 APEC 외무장관 회의에 대응한 민간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번의 회의는 새롭게 대두하는 APEC에 대한 NGO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이었으며 의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 NGO PARALLEL MEETING의 가능성 (11월 인도네시아의 회담)
- 가능한 AGENDA, ISSUES
- 준비, 책임성의 공유, 자원의 동원
- APEC에 대한 설명문 제안
- 유해한 국제기금과 재정기구에 반대하는 캠페인 연결

#### (2) 진행과정 및 결과들

1) 참가자는 모두 12명 이었다. 지역조직은 AC-FOD에서 SABUR와 BOONTHAN이, ARENA에서 BEENA SORAB, ACFOA에서 CECILIA NG, APWSL에서 ROBERT REID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ABI-



DULLA, ZULKARNAEN, 말레이시아에서 OSMAN, 필리핀에서 ROCAMORA, 인디아 출신으로 뉴욕에서 일하는 클리언스, 일본 PARC의 MUTO, 한국에서는 이선태(기사연)가 참석하였다.

2) 참가자들은 앞의 의제에 기초하여 이틀동안의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우선은 APEC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클리언스의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토론으로 'APEC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으로 내부의 교역과 협상을 통해 점차로 완성되어가는 유동적인 조직'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호주와 미국이 강력히 밀고 있으며 아세안의 경우에는 마하트리 등의 안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아세안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이 NAFTA와 APEC을 통해 '유럽 이후'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은 시애틀에서의 회담을 통해 제도화를 요구하였으며 시한을 1996년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정부의 APEC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NGO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며, 호주의 경우에는 NGO 내부에서도 부분적인 이견이 있음이 이야기되었다.



PP21 APEC Working Group Meeting

3) 결국 참석자들은 APEC이 미완성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의 민중들에게 주는 고통이 심대함을 공감하고 우선 각국의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APEC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이에 대한 광범한 선전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NGO가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반대행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 지적되었다. 동시에 지역적 차원만이 아니라 각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이해와 구상을 모두가 숙제로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다.

4) 참석자들은 첫째날 저녁에 APEC에 대한 성명서를 토론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각국에서 비평과 토론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이를 7월까지 position paper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번역문 참조). 또한 노동조건, 고용문제, 환경문제 등을 포함하는 APEC의 영향에 대해 가능한 빨리 DRAFT PAPER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정한 책임을 맡기로 했다. 8월까지 초고를 만들면 이를 기초로 서울에서의 회의를 통해 PARALLEL MEETING에 대한 목표와 성취물들을 구체적으로 토론하자고 결정하였다.

5) 8월10~15일까지 서울에서 시민사회/APEC/통일문제를 갖고 확대회의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회의의 배경은 93년의 서울 CT회의에서 한국의 통일운동에 대한 지원연대에 대한 결의와 결한하지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8월의 서울회의는 외국인 20-30명(북미/아프리카/유럽/SMALL ILAND 포함)/내국인 10-15명이 초청되며, 한국에서의 주최문제는 한국 NGO/PO의 연대에 기초하기 위해서 공동주최가 바람직하다고(기사연이)제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문제는 한국 내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6) 11월 자카르타에서 패럴 미팅 준비는 인도네시아의 INFID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되 ACFOD 등의 지역조직이 경험을 전수하며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참가자는 APEC 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많은 지역에서의 참가가 중요하며 세계의 지역주의화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초청되어야 할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락 문제가 중요했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만일 자카르타에서 불가능하면 인근의 도시, 인도네시아의 진입이 불가능하면 방콕 등의 인근 국가에서 하기로 합의하였다. 언론을 동원하는 문제, 회의 후에 정부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문제들이 토론되었으며 주요한 주제로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반적 정보/APEC의 노동, 농민, 소비자, 여성, 원주민에 대한 충격/자유무역에 대한 민중적 관점 등이 제기되었다.

(3) 기사연 등 한국에서의 과제

APEC문제는 우리에게도 알려진 문제이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상정하면 상당히 생소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기사연은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인 움직임을 한국에 소개하며 관련된 문서를 번역하였다(번역된 성명서 참고). 그리고 APEC문제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규모의 포럼을 6월 말경에 조직하고자 한다. 참여단체는 한국에서 APEC 문제와 관련된 민간단체와 개별 전문가들이 될 것이다. 동시에 토론에 필요한 연구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APEC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95년 3월에 코펜하겐에서 있을 '사회발전전에 대한 UN정상회담'에 대한 민간차원의 논의를 조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ASIAN-PACIFIC NGO CONSULTATION O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5월 2-3일, 장소: 출라롱콘 대학교)

(1)배경 및 목적

이 회의는 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전에 대한 유엔정상회담'에 대한 NGO의 이해와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코펜하겐 대회는 유엔차원에서 그동안 진행된 리우 환경회의, 비엔나 인

권회의, 카이로 인구와 개발회의와 연계되는 것으로 사회발전회의의 뒤에는 95년 9월의 북경 여성대회가 일정에 있다. 코펜하겐 회의의 주요한 의제로는 ▲빈곤 감소 ▲생산적 고용의 증대 ▲사회적인 통합의 강화 등이며, 유엔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준비과정은 지난 1~2월에 뉴욕에서 진행되었으며 2차는 94년 8~9월, 3차는 95년 1월에 뉴욕에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그동안 다른 차원에서의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이후의 일정에 따른 과제들을 논의하는 모임이었다.

(2) 주요한 토론내용

지역과 부문을 포함하는 각각의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회의는 진행되었다.

1) 일단 UN차원에서는 ICVA(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와 ICSW(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가 NGO의 진행과정을 책임지고 있기에 이들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차원에서는 국내협의회를 조직하고 소식지를 만들거나 이를 통해 정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차원에서 NGO의 보고서를 UN 회담에 제출하는 문제가 제안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토론되었다.

2) 아태지역의 차원에서 준비되는 것은 우선 94년 6월 18~19일까지 마닐라에서 'PEOPLE'S ALLIANCE FOR SOCIAL DEVELOPMENT'의 아태지역회의가 있다. 이 회의는 93년 4월 칠레에서 열린 '사회발전 대회에 대한 전세계 NGO회의'에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제의를 아태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필리핀의 PRRM이 준비를 하고 있다.

3) 7월에 방콕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ESCAP-NGO



심포시움'이 ESCAP주관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 회의는 ICSW/ICVA와 ACFOA가 NGO차원에서 회의를 공동 준비하고 있다.

4) PP21차원에서 8월의 서울 회의와 11월의 자카르타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앞의 보고서 참고).

5) 이밖에 주요한 진행과정은 '메콩강 프로젝트', 11월 네팔에서의 '아시아 노동자모임'이 계획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 베트남, 북한의 노조대표를 초청할 예정으로 있다.

6) 이밖에 7월에 방콕에서 ASEAN 회담에 대한 NGO의 대응문제, 10월 방글라데시에서 '아시아 여성 재판', 농민, 원주민문제 등에 대해 각각의 단위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정보의 공유를 위해 보고하고 토론하였다.

(3) 한국에서의 활동과제

우선은 여러 수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대응에 대한 참여와 정보의 수집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내용성의 준비와 한국의 대응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3. PP21 EXTENDED COORDINATOR MEETING (5월 4~5일, 장소: 출라롱콘 대학교)

(1) 배경과 목적

92년 방콕의 제2회 PP21 이후에 진행된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내부의 갈등과 이견을 정리하고 향후의 활동원칙과 일정한 체계 그리고 1년동안의 계획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2) 주요한 토론내용

1) 우선은 92년 방콕대회 이후에 진행된 활동에 대한 지역, 부문,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고가 있었다. 방글라데시, 인디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

역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조직, 부문조직의 보고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이 PP21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 없기에 정세의 변화, 몇가지 활동의 원칙, APEC에 대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다.

2) CT의 활동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간사들의 조직과 연락망,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 소식지(ALLIANCE OF HOPE)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3) 그동안 활동 부진의 원인이었던 내부의 이견에 대한 조정을 위해 CT 성원인 MUTO가 'PP21의 잠정적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공동소집자(CO CO-NVENER)'와 '회원(PARTNER)' 개념의 문제가 일정하게 정리가 되어 PP21의 이념에 동조하는 모든 단체가 PP21의 이름으로 공동의 활동을 조직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4) CT의 임기가 1년으로 93년 5월에 결정되었으나 그동안의 '활동정지'로 앞으로 1년동안 더 권한을 주기로 결정하여, 95년 말까지 PP21의 총회를 소집하고 장소는 추후 결정하되 스리랑카가 자국주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5) 앞으로 '메콩강 프로젝트', 네팔에서의 'A SOUTH ASIAN CONVENTION ON RIVER, WATER, ENVIRONMENT AND AFFORESTATION IN THE WATERSHED OF NEPAL', APEC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 남은 과제들

한국의 민간운동이 국제적 연대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은 그리 풍부하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필요로 되는 선에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관심과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연대를 한국의 민간운동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와 세계의 민간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자료 8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아펙(APEC)과 경제적 지역주의에 관한 성명서』

다음 성명서는 1994년 4월 29~30일 양일간 방콕에서 있었던 PP21(People's Plan for the 21th Century) 아펙실무자모임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것은 토론의 진행과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한 활동에 알맞은 기여로서 이 지역 안에 있는 다른 포럼들에 제출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1993년 11월 APEC정상회담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후 APEC 발전의 가속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정부들 사이에 중단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민중단체들도 APEC의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른 지역 경제의 설립과 계획안들에 대하여 토론과정이 개시되었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와 남부아시아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다. 그곳은 21세기에도 고성장지역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경제적 성과는 이 지역의 민중과 환경에 댓가를 요구했다. 그것은 또한 이 지역경제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 의존하게끔 만들었다.

북미와 유럽시장에 대한 이 지역의 의존성으로 이 지역 정부들은 쌍무무역과 투자협상, 더우기 최근에는 APEC을 통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기 쉽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이 지역에서 미국경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더 효과적인 수단을 만들고 유럽연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APEC을 강제하였다.

이 지역 자체 내의 경제적 관계는 크게 불평등하고 계급관계는 심화되었다. 일본의 무역과 투자는 첫번째 세대 NICs의 경제에 침투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일본과 함께 대만과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에 침투하였다. 이제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값싼 노동력과 시장을 착취하기 위하여 모두 달려들고 있다.

경제적 성장이 어떤 부분에서 이익을 낳은 반면, 그것은 다음을 동반하게 되었다:

- 저임금, 건강과 안정된 규범의 퇴락, 그리고 조직화를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한;
- 천연자원 기반의 고갈, 아시아-태평양 민중들의 중요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환경의 손상;
- 수치스러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이들;
- 전통적 농업, 전망있는 직업과 수입에 대한 대책없는 고유한 민중의 생계의 파괴.

APEC, EAEC, 그리고 AFTA는 그 지역에서의 경제적 새력들간에 주도권과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위한 투쟁이



진행중임을 반영한다. 클린턴 행정부가 NAFTA의 승인 이후 곧 APEC을 밀기 시작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두 조직은 미국 자본에 의하여 구성된 나라들의 경제적 침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펙을 위한 미국의 계획에 관한 완전한 실행은 민중과 환경에 관하여 진행중인 경제적 작용의 영향을 격화시킬 것이다.

지역에서의 어떤 민중의 조직들은 경제적 지역주의를 위한 이러한 여러가지 제안의 일부 요소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맞추어지는 반면에, 우리 민중단체의 주요한 과제는 대안있는 민중의 지역주의를 위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의 가능한 방향은 도시와 시골의 노동자, 실제 소비자, 그리고 작은 규모와 형태의 일부 생산자들이 경제적 국제화의 맹슴에 대항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지키는 지역사회현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난한 농민과 토착민중, 그리고 여성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는 지역사회현장은 아펙과 같은 그러한 지역구조 안에 개발되고, 널리 전파되며 그리고 삼입될 수 있다.

존재하는 지역구조에 신뢰할수 있고 효과적인 반응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안에서, 아시아-태평양 민중단체들은 북미에서의 반NAFTA 정당과 같은 다른 지역의 그룹들과 유럽연합에서의 진보적인 사회현장을 위하여 압력을 넣는 그룹들과 함께 가능한 더욱더 밀접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는 그와 함께 북미와 유럽의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아시아의 수출경제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일할 수 있다.

이 성명서는 이에 관하여 더 많이 확장된 토론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제출되고 있다. 더 자세한 형태의 보고서가 연구되고 회람되어져야 한다; 지역사회현장이 난지 원칙만의 성명서로 남겨지지 않기 위하여 지역사회현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힘을 동원해야만 한다.

1994년 4월 30일  
PP21 아펙 실무자모임

“사회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담을 위한 아태 민간회의” 참가 보고서  
Asia-Pacific NGO Conference for 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환경운동연합  
1994. 6. 23

1. 세계정상회담을 위한 아.태 민간회의 목적

1995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에 대한 세계 정상회담(내용 첨부)은 UN이 주관하며 주제는 “개발과 국제 협력에 민간이 중심으로”로 Social Summit가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국내,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회담전까지의 회담의 위상정립에서의 NGO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민변과 기사현의 정보제공으로 1994년 6월 16~18일에 PASD(People's Alliance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주최한 사회개발 사회정상회담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민간회의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아-태 회의의 부제는 “입장을 세우고 미래를 주장하는 21세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중의 아젠다”로 목적(아-태 회의운영위원회측)은 다음과 같다.

- 1) 각국의 문화와 발전 경험상의 지식과 전망을 공유하기위하여, 아태지역의 지역과 국가의 NGO로부터의 대표자들을 소집한다.
- 2) 지역적 개발 이슈와 경향에 대한 평가를 공식화한다.
- 3) 세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역적 선언들을 통해 기본적인 입장을 만든다.
- 4) NGO 선언과 일계획들을 촉진하기 위한 아태 지역의 매카니즘을 강화한다.

: 회의 운영위원회의는 사회 개발을 위한 민중 동맹의 구성을 제안.

환경련은 한국 NGO들이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UN 세계정상회담에 대한 정보 수집과 아태지역의 정상회담 준비과정과 입장에 대한 정보 교류와 사회개발의 중점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2. 진행상황 보고

이 회의의 주관은 APPROTECH ASIA, ISIS, PRRM, CIWS 이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60여개 NGO 단체가 참석하여 6월 16일부터 6월 18일 사흘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6월 16일

- . 개회식 - Lilia O. Ramos
- . UN 문건 브리핑
- . 발표 : 개발모델의 모순 - Walden Bello (FOOD first)
  - 1. free-market model 2. NIC model 3. 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m
- . 발표 : 빈곤경감과 지속가능한 개발 - Muto Inchiyo, Yunos
- . 워크샵 - 개발모델의 모순, 빈곤경감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토론



6월 17일

- 본회의 의장의 6월 16일 본회의 요약발표
- 발표 : 국경간 문화와 윤리의 문제 - Brvashi Batalia
- 발표 : 대응적인 통치와 민중의 참여 - Ed dela Torre
- 두번째 워크샵 : 토론
- 본회의 - 워크샵 보고서 제출, 전반적인 종합 - Rajesh Tandon
- 아시아-태평양 NGO 발표문 초안 작성 및 토론

6월 18일

- 기자회견 : NGO 성명서 발표(첨부)

진행방식은 회의에 연관된 강연을 듣고 몇 그룹의 워크샵을 통해 토론을 하고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여 아태 NGO 의 입장을 성명서로 취합하였다.

이는 3가지 주제로 통일되었는데 첫째, A New Asia-Pacific Consensus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합의, 둘째, A Social-Environmental Compact 사회환경적 계약지침 셋째 People's Participation as Main Strategy 중요 전략에의 민중의 참여이다.

첫번째 새로운 합의는 가난, 실업, 사회적 분열의 해결은 성장이지만 이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생존 환경 사회 문화를 파괴하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정부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창달자들은 미래에 전략, 행동 비전을 환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 한다.

둘째 아젠다는 가난을 없애고 동시에 아시아 생물종다양성을 보호하고 아시아 환경의 공해를 방지하는 약속이 모든 방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예산, 자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은 그들이 각자 계몽을 다하는 것과 학계, 정부와 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 정부에 대하여는 준비작감과 환경예산할당량을 늘리도록 사회환경 기금이 시민운동의 예산에 할당되도록 한다.

셋째, 개발의 과정과 결과 모두 사람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며 민주적 통치야 말로 시민정치 참여의 기본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민주적 통치는 좋은 정부뿐 아니라 최적의 정치환경을 창출하고 시민의 주도권과 참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시민이나 단체가 통치, 시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차후일정

NGOs/POs

- '94 7월 18-26일 : ASEAN 정상회담에 대한 NGOs 포럼 (방콕, 태일란드)
- 8월 11-15일 : APEC/시민 사회등에 대한 세미나/포럼 (서울, 한국)
- 11월 : APEC에 대한 NGO 포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 : 노동조합 회의 (캐스만두, 네팔)
- 12월 : 이-태 인권에 대한 민간 조정회의 (날짜, 회의장소 미확정)

UN 일정

- '94 7월 18-26일 : ESCAP 전문가 그룹 회의 (방콕, 태일란드)
- 7월 20-27일 : ASEAN Summit (방콕, 태일란드)
- 8월 22일-9월 2일 : WSSD 2차 준비회의 (뉴욕, 미국)
- 10월 12-15일 :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부 고위층 회담
- 10월 17-18일 : 아-태지역 장관 간담회
- 11월 : APEC 정부측(장관) 회의
- '95 1월 16-27일 : WSSD 3차 준비회담 (뉴욕, 미국)
- 3월 6-12일 : WSSD 본회의 (코펜하겐, 미국)
- 북경 세계여성회의 최종 준비회의 (뉴욕, 미국)

4. 환경연 향후 계획

- 아태회의에서 입수한 UN자료, NGO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연의 참가 입장을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RM과 PP21을 통한 이후 NGO 회의와 UN회의에 대한 정보교류:
-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한국 민간 사회단체와 정보교류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동 구성이 필요하다.



**DECLARATION**

**of the Asia-Pacific NGO Conference on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5-18 June 1994  
Manila, Philippines**

## **An Asia-Pacific Agenda for the Social Development Summit**

We are Asia-Pacific NGOs claiming a stake in the 1995 UN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in Copenhagen. We are also citizens, men and women exercising our right to have a say in shaping the future social order, in the world but especially in the Asia-Pacific.

The region we live in has a great share of the global stock of social "goods" and "bads". The "goods" are the region's wealth: more than half of humanity, rich biodiversity, great religions, extremely diverse and enduring indigenous cultures and communitarian traditions.

Our region has the biggest share of poverty - 800 million of the world's 1.2 billion poorest - despite its great share in wealth creation for all humanity. We have the most number of excluded, invisible, non-participating, discriminated human beings, majority of whom are women.

We confront a specter of deepening deprivation, increasing civil and ethnic conflicts, involuntary mass migration, prostitution, drug addiction, crime and violence, graft and corruption in high places, overconsumption and monopoly of resources and decisions by a few - all contributing to the disintegration of social values and social cohesion.

In an ever rising scale, we are losing a great part of the natural systems that support life - our lands, our forest, our seas and oceans and the clear sky above us.

Our societies are undergoing great transitions. Most have squeezed themselves free from colonial past, although some continue to remain hostage to it. We have seen many great people's movements that caused regime changes toward a more democratic direction, although many governments remain authoritarian and repressive. We are shaking off negative legacies, trying to retrace and recover our buried but enduring roots. We want to partake of the positive gains of human progress as we keep firmly linked to our roots.

We are committed to initiate and support some changes and resist others. And we do this fully conscious of where we stand, our dreams of a new society for humanity and for the people of this region. We realize that the Asia-Pacific, with all its strengths, stored human and natural energies, failings, and collective will, can have the capacity to make or break any sort of emerging world social order.

-56-

From this perspective and premises, we want to address the World Social Development Summit with a three-point agenda for an equitable and sustainable future for the Asia-Pacific. This regional agenda consists of a new consensus, a social compact and an overriding strategy.

### **A New Asia-Pacific Consensus**

At the core of the current Asia-Pacific dilemma is a very appealing, powerful but dangerous growth consensus. Official and corporate wisdom has it that growth is the answer. It is the answer to all the three core issues identified by the Social Summit, namely, poverty, joblessness, and social disintegration. By implication growth will take care of bridging the great and widening divid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many problems that bother men and women in their private lives and workplaces and tear apart the ties that bind them with their families, communities, the larger societies.

We assert that this kind of consensus is precisely the problem. In the name of growth were justified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that made debt-burdened countries even weaker and the majority of their people poorer and without any safety nets to come to their defense. We now know the best that such growth consensus can offer and can promise for our future. It gave us so much material abundance never before seen in human history. But it also gave us inequality and material and spiritual poverty of monumental proportions. It left us with devastated societies and living environments, shattered dreams, civil conflicts and violence, profoundly damaged cultures, intensifying border wars, a legacy of waste of human potentials, altogether, producing a paralyzing effect on our capacity to deal with the present and future problems and challenges.

Against this growth consensus, we challenge the United Nations and all its member-states, the business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of financial power to join and commit with many groups like ourselves to a fundamental change of course. Let us together build, unite and advance a new consensus that put people and environment first and last. What sense of value there is in growth must be deliberately subordinated to this principle. We challenge the governments of this region and all those involved in transforming the Asia-Pacific economies, societies and cultures to rethink and reshape their visions, strategies and practices along a new path to human progress guided by such principle. We want to see this principle established as a charter at the end of the Summit.

### **A Social-Environmental Compact**

As groups coming from civil society, we commit ourselves to stand by the interest of people and the environment. We demand that Asia-Pacific governments, corporations doing business or shaping the economies of this region, and all institutions of financial power to agree to a compact aimed at ending poverty and enhancing human dignity by creating the conditions for equal opportunities among and within nations and societies, between men and women, the old and the young, the able and disabled, the minority and the majority. Such compact must also include a definite commitment by all parties to protect the regional biodiversity and prevent the degradation of the region's diverse ecosystems.

-57-



States and governments must realign their policies, plans, programs, projects, budgets and resources toward the achievement of an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ikewise private business will have to change their corporate policies and practices. Citizens, as individuals and groups, must commit to hold states and corporations in the fire of reforms even as they do their share of the agenda on their own.

We demand that Asian governments make good their promise to level the unequal playing field on behalf of men and women and their environment. Among many other things that governments ought to do, with or without citizen pressure, we propose that they cutback and forego any more military spending with a view to full disarmament eventually and allocate for the time being a significant slice of their budgets and resources to people's capacity building. Specifically, we propose the creation of a social-environmental fund to be exclusively dedicated to financing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voluntary sector even as state resources and finances are allocated primarily to activities for whole-scale poverty eradication and environment restoration.

### People's Participation as Main Strategy

To paraphrase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development must be woven around people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What this means to us is, people are at the center of determining both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development.

The level, quality and potential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Asia-Pacific continue to be constrained by a host of outstanding governance issues. While two-thirds of the world now live under or are in transition to some sort of democratic set-ups, a great number of people in the Asia-Pacific still remain under one or other form of authoritarian rule. Even in so-called democratic countries of the region suppression of civil liberties and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age, poverty and physical ability still persist on a largescale and have their roots in state policy.

Recognizing that democratic governance is the basic condition that allows people's participation to flourish, we demand that governments of this region make good their commitment to the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ood governance means that governments do not only govern well but in fact create the best political environment and optimum space for people's initiative and participation at all levels and arenas of decision making.

For our part, we commit to continue to build people's capacities to take control of processes that affect their lives. We envision a level of capacity building wherein people's and civic organizations shall be able to effectively intervene in governance and market operations even as they can already demonstrate a capability to address problems on their own.

With or without a compact, the groups who participated in this Asia-Pacific NGO Conference commit not only to push civil society into the mainstream of development discourse but, more so, to enable it to become a major factor in shaping the future social order.



# Challenges for NGOs

PUTTING PEOPLE FIRST

## PARTICIPANTS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Bella Centre, Copenhagen, Denmark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will attend the two-day Summit (11-12 March), while their representatives and other high-level officials and experts will participate in the pre-Summit consultations. Participants and observers will also include UN system organization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recognized by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experts,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accredited NGOs.

### NGOs:

NGO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expressing the wish to attend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or the PrepCom meetings, will be accredited for participation. Other non-ECOSOC NGOs may apply to the Summit Secretariat responsible for evaluation of accreditation requests (see provisions under "NGO Participation in the Summit" on page 7 of this brochure).

Pre-Summit Consultations  
6-10 March 1995

World Summit

11-12 March 1995



UNITED NATIONS

## KEY SUMMIT AGENDA ISSUES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Creating a "society for all" means that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must be "brought in from the cold",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through equal access to opportunity, absence of discrimin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Alleviating and Reducing Poverty:** The Summit hopes to achieve consensus at the highest levels on the kinds of economic policies which will enhance productive employment; i.e., both economic and social efficiency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manner.

**Expanding Productive Employment:** As primary causes of poverty, migration and unrest, unemployment and low-productivity employment must be replaced by more productive work opportunities; i.e., hig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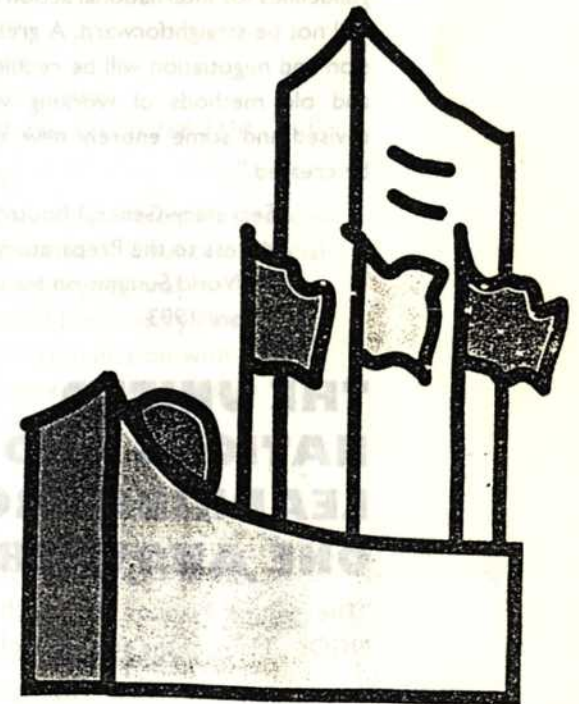
rates of economic growth, more jobs and a better balance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jobs.

## PROMOTING SOCIAL PROGRESS...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its Preamble, expresses the commitment of the people:

-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 to practic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urs; and
- to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

Article 55 of the Charter endorses the promotion of "higher standards of living, full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 Challenges for NGOs

P U T T I N G P E O P L E F I R S T

### CREATING NEW APPROACHES TO OLD PROBLEMS...

"...The Summit, coinciding with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will lay the foundations of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social development sphere for generations to come. It will be the culmination of a process of rethinking which began with the collapse of bipolarity. The task before you is not an easy one. We are beginning to develop new interpretations of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The new approach must be inclusive, must encompass all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life and must seek to promote a society in which each and every individual has the potential and opportunity to become involved in development. We are abandoning the fragmented compartmentalized approach of the past which failed to concentrate on the dynamics of whole societies. We now are beginning to see the interrelationships which exist betwee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To move from these general propositions to practical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action and cooperation will not be straightforward. A great deal of discussion and negotiation will be required. Old notions and old methods of working will need to be revised and some entirely new approaches must be created."

- Secretary-General Boutros Boutros-Ghali  
Address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12 April 1993

### THE UNITED NATIONS AND NGOS: LEARNING FROM ONE ANOTHER

"The United Nations has much to learn from NGOs... Many of the strengths of NGOs are well

known. You have a special ability to reach targeted groups. Your organizations have more flexible and informal structures. You have access to private funds, an ability to by-pass red tape, and highly motivated staffs. NGOs can also mobilize public support for securing donor assistance and for influencing the use of such assistance...but there is also much that NGOs can learn from the United Nations."

- Secretary-General Boutros Boutros-Ghali  
Remarks to the Panel on African Development  
and the 46th Annual NGO/DPI Conference,  
17 April/8 September 1993

### LOOKING TOWARDS THE SUMMIT: 46th ANNUAL NGO/DPI CONFERENCE

NGOs have made an early start on activities geared towards the Social Summit. In preparation, from 8-10 September 1993, some 1,400 representatives of DPI-associated NGOs attended the 46th Annual NGO/DPI Conferenc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This conference drew participants from amongst 370 NGOs, 45 countries and many UN system agencies.

The theme was "Social Development: A New Definition for Security". As the Conference unfolded, it became clear that NGOs were already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early stages of this Summit.

NGO input is vital. Strengthening active collaboration between NGOs and the United Nations throughout the Summit "process" is imperative to translating policy into practice. And post-Summit success in the "real world" will depend, to a large extent, on support from the NGO community worldwide.

As a preliminary "blueprint for NGO action",

## Challenges for NGOs

P U T T I N G P E O P L E F I R S T

the Final Report of the 1993 Annual NGO/DPI Conference should serve not only as a report of the proceedings but also as a primer for NGOs involved in preparations for the Social Summit.

For your copy of this report,  
Social Development:

**A New Definition for Security,**

please contact:

NGO Sectio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801 UN Plaza, Room U-104  
New York, NY 10021, USA

Tel. (212) 963 7236, Fax: (212) 963 6914



### NGOS PREPARATION FOR THE WORLD SUMMIT

20 - 22 April, 1993, Santiago de Chile

The People's Alliance for Social Development created five "themes for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round which to focus NGO preparations for the Summit:

- Equity and Social Justice;
- The Strengthening of Civil Society;
- Peoples' Rights to Participation and Good Governance;
- Structural Causes of Poverty; and
- Promotion of Pluralism and Cultural Identity.

The People's Alliance will hold regional consultation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during 1994/95 to support NGO contributions to the Summit.

For additional details, contact:

**South American Peace Commission**

P.O. Box 16085

Correo 9, Juan Williams Noon 643

Antonio Varas alt 640 Providencia

Santiago, Chile

Tel. (562) 235 7117, Fax: (562) 236 0279

**Int'l Council for Adult Education**

P.O. Box 2-D

Centro El Canelo de Nos

Avda. Portales 3020, Nos

San Bernardo, Chile

Tel: (562) 857 1780, Fax: (562) 857 1160

**5 February 1994, New York**

Social Summit Consultation for NGOs sponsored by the Facilitat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CONGO). For details, contact:

Robert Harris

Education International

57 ch. Moïse-Duboule

CH-1209 Geneva, Switzerland

Tel. (4122) 788 7300, Fax: (4122) 788 7330.

**July 1994, Helsinki**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Agencies (ICVA)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ICSW) are holding regional consultations, as well as a global NGO Preparatory Meeting, for the Social Summit in conjunction with ICSW'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For further details, contact:

**ICVA**

13, rue Gautier

CH-1201 Geneva, Switzerland

Tel. (4122) 732 6600, Fax: (4122) 738 9904

**ICSW**

380 St. Antoine Street West, Suite 3200

Montreal, Quebec H2Y 3X7

Tel. (514) 287 3280, Fax: (514) 987 1567



## Challenges for NGOs

### PUTTING PEOPLE FIRST

#### SETTING THE STAGE: THE UN PREPARATORY PROCESS

##### WHO:

The Preparatory Committee (PrepCom) of 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comprises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s well as members of UN specialized agencies. A core Bureau is chaired by Ambassador Juan O. Somavia (Chile), with representatives from Cameroon, Zimbabwe, India, Indonesia, Poland, the Netherlands, Australia, Mexico and Latvia as well as Denmark (Summit host country *ex-officio* member), serving as Vice-Chairpersons. UN preparations for the Summit are being coordinated by a small secretariat headed by Jacques Baudo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Under-Secretary-General Nitin Desai, Department for Policy Coordin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WHERE:

All substantive PrepCom meetings will be held in New York.

##### WHEN:

There will be four substantive PrepComs:

##### 31 January - 11 February 1994, New York

Focus of the First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 Reports from expert meetings
- Reports/Documents on UN specialized agencies/programmes

For this PrepCom,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ive areas pertaining to the Summit will be discussed:

- Raising awareness (enhancing conventional methods)
- Exchang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 (social indicators)
- Establishing policy dialogue in areas of international

concern (NGO potential as catalysts and re-disseminators)

- Developing norms, standards, conven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quantified targets)
- Identifying areas of cooperation and direct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22 August - 2 September 1994, New York  
Secon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September - December 1994, New York  
49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 Reports from First and Second PrepCom meetings

16 - 27 January 1995, New York

Thir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6 - 12 March 1995, Copenhage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 WHAT WE NEED

##### Staking our Claims:

According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7/92 of 16 December 1992, which convened this Summit, it will seek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

- A new development consensus: namely, that

Development =  
Economic Growth + Environmental Concerns  
+ Social Concerns

- Agreement on feasible social change between 1995 and the year 2000;

- Tentative agreement on longer-term challenges to be pursued and a possible follow-up Summit in the year 2000;

- A shared worldwide commitment to put the needs of people at the centre of development;

- Cooperation as a major prio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 Challenges for NGOs

### PUTTING PEOPLE FIRST

#### THE SUMMIT: CHALLENGES TO NGO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own impact on the outcome of the Social Summit, NGOs participating in the 46th Annual NGO/DPI Conference in September 1993, agreed that they must:

- Establishing a balance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justice in a growth-oriented, equitabl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nationally defined priorities; and

- Awareness and integration of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into society.

##### Setting our Sights

In a preview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sponsored publication,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Mahbub ul-Haq, Special Adviser to the UNDP Administrator, confirmed that the Summit must set its sights high, ultimately striving for no less than:

- A new consensus on development, integrating sustainable economic, human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into one over-arching concept;
- A new framework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ed on poverty allevi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s rather than on cold war alliances;
- A new national and global governance which places people at the very centre of development; and
- A concrete global compact for a new World Charter aimed at securing greate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all peoples.

- Ensure an active NGO role in the preparation and follow-up of the Summit, as well as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 Spark implementation of Agenda 21;

- Make sure that economic and social issues are linked;

- Insist that th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E) include social issues amongst its priorities;

- Represent the interests of marginalized sectors of society so that they have a voice in economic and social policy-making;

- Develop joint strategies with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to provide more effective aid for social development;

-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long-range, workable solutions that prioritize human needs, such as:
  - prevention of rapid population growth;
  - better education and training, especially for women and girls;
  - integration of family-planning and primary health-care programmes;
  - improve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 income-generating vo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for women and young people;

- Link preventive diplomacy and peace-building with core Summit issues;

- Demand that the peace dividend from savings on military expenditures be invested in long-term human capital projects;





## Challenges for NGOs

### PUTTING PEOPLE FIRST

- Insist that developing countries reduce military spending and that industrialized countries reduce arms production and sales;
- Urge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decreased social spending and to restore discontinued social services;
- Encourage Governments to generate additional resources through proper plan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Source: Social Development: A New Definition for Security, Final Report of the 46th Annual NGO/DPI Conference, 8-10 September 1993, New York.

## NGOs CONTRIBUTION TO A "NEW DEFINITION FOR SECURITY"

At the conclusion of their 1993 Annual Conference, NGOs also made a number of specific recommendations, highlighting their role in the creation of a "new definition for security", namely that:

- NGOs must demand the peace dividend;
- NGOs must "make waves", acting as strong advocates for social issues;
- NGOs must build coalitions and encourage solidarity;
- NGOs must "think globally" in terms of outreach and "act locally" in terms of concerns;
- NGOs should be encouraged by Governments and donors to help generate community involvement;
- NGOs should assist at all levels in the formation of voluntary organizations, especially with countries in transition;
- NGO involvement should be considered a pre-requisite f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 NGOs should be included in all strategic planning developed by donors and Governments;
- NGOs should be recognized and supported by Governments as an alternative source of programme implementation;
- NGOs should be viewed as partners in "complementary competition", raising the level of programme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 NGOs should insist on acc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Governments in implementing social development agendas.

Source: Social Development: A New Definition for Security, Final Report of the Annual NGO/DPI Conference, 8-10 September 1993, New York.



-64-

## Challenges for NGOs

### PUTTING PEOPLE FIRST

## NGO PARTICIPATION IN THE SUMMIT

### Arrangements for NGOs: Information and Accreditation

- For general information, NGOs may contact the NGO Focal Point, Secretariat of the World Summit, S-3060A, Fax: (212) 963 1010.
- For accreditation, NGO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will be accredited automatically upon written request.
- NGOs not in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that desire accreditation to the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should apply to:

United Nations Secretariat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NGO Unit/DPCSD, Room DC2-2340  
New York, New York 10017, USA  
Fax: (212) 963 3892

All such applications must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information:

- Purpose of the organization;
- Information on its programmes and activities of relevance to the Summit, including substantive content and geographic location;
- Proof of activities at the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level;
- Copies of annual reports with financial statements; and
- Description of membership, indicating the total number of members and their geographic distribution; also a list of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and their country of nationality.

NGOs seeking accreditation must confirm their interest in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Summit. The background of each organization and its involvement in social development issues, particularly the core issues of poverty, unemployment

and social integration, will serve as primary criteria in granting accreditation.

Any NGO which has been accredited to attend one session of the PrepCom may attend all future sessions, as well as the Summit.

## THE SOCIAL GAP: SOME FACTS AND FIGURES



### Did you know that....

- The world spends over \$600 billion a year on military programmes despite the fact that:
  - over one billion of its inhabitants lack basic health care;
  - one adult in four is unable to read and write; and
  - one-fifth of the world population goes hungry every day.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93, Sivard)
- Reported crime is growing at a worldwide average of 5 per cent every year since the 1980s, well beyond global population growth rates. (1990 Report of the UN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 Profits from illegal drug trafficking are estimated at \$500 billion a year, a sum equal to the combined gross national products of two-third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1990 Report of the UN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 Worldwide, one out of every five people - some one billion in all - live below the poverty lin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Press Kit)
- Three-quarters of the world's income - about \$20 trillion - goes to only 16 per 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 Women and the disadvantaged are the primary victims of poverty. Women comprise 70 per cent

-65-



## Challenges for NGOs

### PUTTING PEOPLE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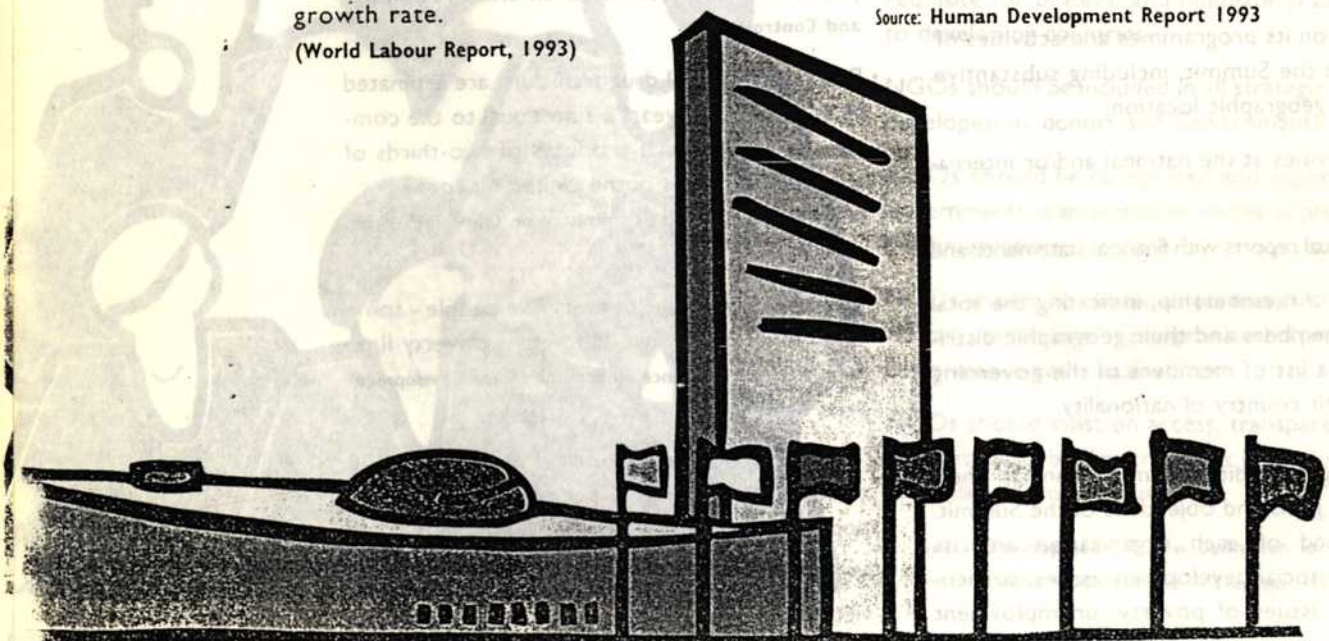
of the world's poor. The number of poor rural women in developing countries has doubled over the last two decades. (Women: Challenges to the Year 2000/ICPD Press Kit)

- The numbers of the world's poor will quadruple within one lifetime if current demographic trends continue. (UNICEF News Feature)
- An estimated 13-18 million people die each year of poverty-related causes.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 "Jobless growth" is now a worldwide phenomenon. Economies grow but leave people behind, even in rich countries, eg. from 1967-1980, France, Germany and the UK doubled their economic growth rates while employment rates declined.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 Twenty per cent of the world's total wage earners receive only 2 per cent of the world's income. (World Labour Report, 1993)
- From 1960-1987, the labour force increased by more than 400 million in developing countries. One billion new jobs will be needed over the next decade to keep pace with the current growth rate. (World Labour Report, 1993)

### What are NGOs doing to narrow the widening global social gap?

- NGOs are growing in number, outreach and efficacy. Today, NGOs benefit more than 250 million people, compared to 100 million just a decade ago;
- NGOs are prime instruments in spreading democracy, reaching the poorest of the poor, providing emergency assistance, empowering marginalized groups and mobilizing public opinion through advocacy.
- NGOs work at the "grassroots", often in remote rural and poor urban areas. They reach some 20 per cent of those 1.3 billion people living in absolute poverty;
- NGOs provide development assistance. In 1989 alone, NGOs provided \$6.4 billion, more than the world's premier development agency, the World Bank;
- Northern NGOs serve as channels for both private and public aid. The total transferred by northern NGOs increased from \$1 billion in 1970 to \$7.2 billion in 1990 - in real terms twice the rate of increas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Sourc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3



가자 12

## LIST OF ACTIVITIES TOWARDS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BEYOND

(For information only)

Official		NGOs / POs	
May 1994		May 02-03	Asia Pacific Consultation Bangkok, Thailand
June 07-14	Asia Preparatory Committee for World Conference on Women Jakarta, Indonesia	June 15-18	<b>THE ASIA PACIFIC NGO CONFERENCE FOR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b> People's Alliance for Social Development (PASD) Manila, Philippines
July 18-26	Expert Group Meeting ESCAP, Bangkok, Thailand	July 12-15	ESCAP-NGOs Symposium on Social Development Bangkok, Thailand
July 20-27	ASEAN Summit Bangkok, Thailand	July 18-26	NGOs Forum at ASEAN Summit Bangkok, Thailand
Aug. 22 - Sept. 02	WSSD 2nd Preparatory Committee New York, USA	Aug. 11-15	Seminar/Forum on APEC/Civil Society/etc. (Korea Program) Seoul, Korea
Oct. 12-15	Asia Pacific Senior Official Meet		
Oct. 17-18	Asia Pacific Ministerial Confab Jakarta, Indonesia		
November	APEC Ministerial Meeting Jakarta, Indonesia	November	NGOs Forum on APEC Jakarta, Indonesia
			Pro-Worker Union Conference Kathmandu, Nepal
December		December	Asia Pacific Human Rights NGOs Coordination Meeting Date & Venue to be finalized
<b>1995</b>			
Jan. 16-27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3rd Preparatory Committee New York, USA		
March 06- 12	<b>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b> Copenhagen, Denmark March 06-10: Pre-Summit March 11-12: Summit		
	Last Preparatory Committee of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New York, USA		

Asia Pacific Consultation o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Update May 3, 1994